

# 중국 연변 조선족의 생활상 : 과거와 현재\*

한 상 북\*

## 目 次

- I. 연구의 배경과 자료
- II. 이주의 역사
- III. 생활경험
- IV. 공동체생활의 특성과 변동

## I. 연구의 배경과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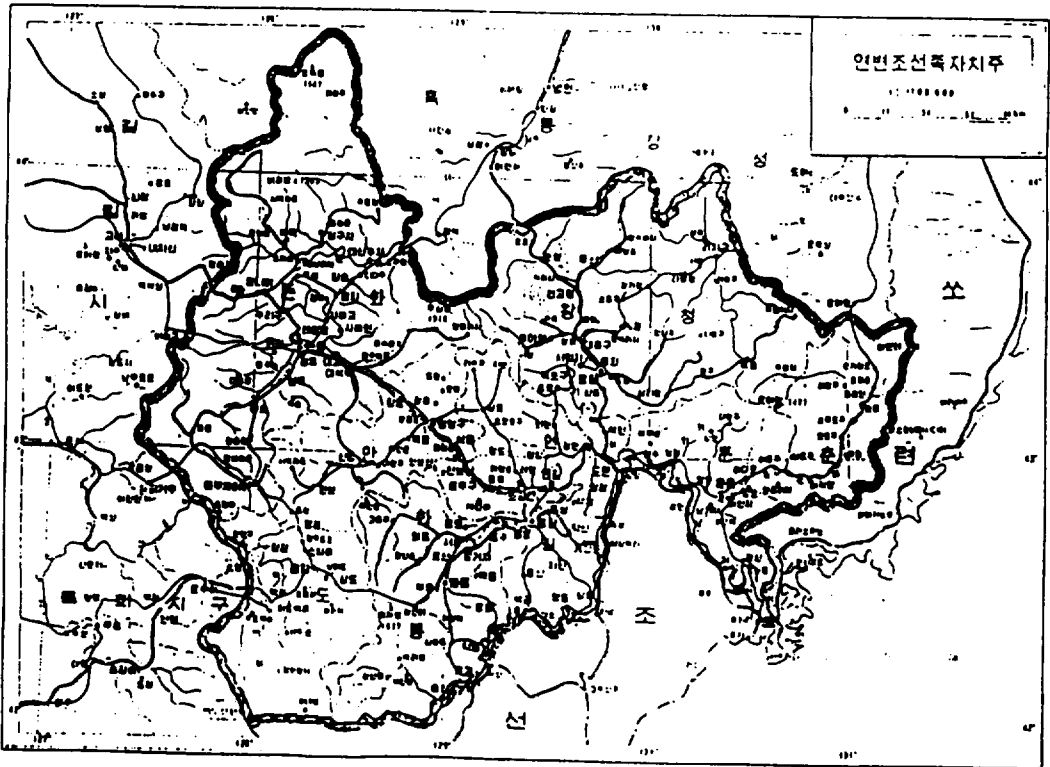
한국인으로서 세계의 여러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 교민은 현재 한국 인구의 10%, 그리고 남북한 총 인구의 7%에 달하는 약 450만으로 추정된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교민집단이 살고 있는 나라는 중국으로 그 수가 200만에 달한다. 그러나 중국의 조선족에 대한 연구는 1949년 이후 중국 정부의 폐쇄 정책과 한국과의 국교 단절로 1980년대 중반까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중국 정부가 한국인의 친척 방문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승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중국에서 출판된 조선족에 관한 2차적인 문헌 자료를 짜맞추기 식으로 엮어서 펴낸 글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 서울대학교수, 인류학

\* 이 연구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한국 해외교민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1989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에 의하여 필자와 권태환(서울대·사회학)이 공동으로 연구한 특별 과제 <중국 연변 지역의 한인에 관한 연구>의 일부이다. 이 자리를 빌어 교육부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고마운 뜻을 밝힌다.

러나 자료의 출처가 같기 때문에 그것들의 내용은 거의 모두가 비슷하거나 심지어는 프랑켄스타인과 같은 허상의 괴물이 되기도 하였다. 중국 조선족에 관한 실증적인 현지 조사 연구는 1980년대 말까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조사 연구는 그러한 비경험적인 2차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국 조선족의 생활상을 총체적으로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으로는 중국 조선족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길림성의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요녕성과 흑룡강성을 개괄적으로 조사 연구하였다. 중국 조선족의 98% 이상이 위의 동북 3성에 집중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조선족 전체의 60%가 길림성에 거주하며, 40%인 80여만명이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인구·조선족과 한족의 관계·국가 의식과 남북한 인식·가치 지향과 민족의식·생활사·공동체·혼인·가족·친족·직업과 경제·교육·의례·언어·의식주·보건과 위생 등이다.



자료 수집은 1990년 1·2월과 6·7·8월에 걸쳐 행하여졌으며, 조사연구 방법은 문헌 조사와 현지 조사로 구분된다. 문헌 조사에는 주로 중국 및 연변현지에서 간행된 각종 통계 자료와 조선어 및 중국어로 쓰여진 논문·저서·각급 학교의 교과서 등을 수집하였다. 현지 조사에서는 질문지 작성을 위한 예비적 관찰과 면접의 탐색 조사, 사회학적 질문지 조사, 인류학적 현지 관찰 및 심층 면접을 행하였다. 사회학적 질문지 조사를 위하여 우리는 3가지 종류의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첫째는 거·촌(居·村) 조사표로 연변조선족자치주의 8개 시·현(연길시, 용정시, 도문시, 훈춘시, 돈화시, 화룡현, 왕청현, 안도현)의 40개 거·촌(도시 11거, 농촌 29촌)을 대상으로 하여 마을 개황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는 가정 조사표로 각 거·촌에서 50호씩 2천 가구를 표본추출하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 내용들을 포함시켰다. 셋째는 개인 조사표로 조사 대상 가구에서 기혼자 1명씩 2천 개인을 계통별로 선정하여 개인 생활과 가치관 및 태도에 관한 질문 항목들을 포함시켰다. 이렇게 작성된 질문지에 의한 양적 자료는 연변대학교 조선문제연구소 교수와 연구원들의 협조로 수집되고 부호화되었다. 현지 관찰과 심층 면접은 질적 자료를 수집하여 질문지 조사의 양적 자료를 보완하기 위하여 행하여졌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질문지 조사의 통계 자료는 부호화 작업을 마친 상태에서 중국 정부의 공안부에 압류당하여 반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공개 간행된 자료에 한하여 외국반출을 허용한다는 학술 정책 규정에 따라 40개 거·촌과 2천 가정 및 2천 개인에 대한 우리의 조사 자료는 전혀 반출할 수도 분석할 수도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탐색 조사와 현지 관찰 및 심층 면접 등에 의한 제한된 질적 자료와 조선문제연구소에서 작성한 제한적인 단순 제표 자료, 그리고 연변 및 중국의 다른 여러 지역에서 수집한 각종 문헌 및 통계 자료만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연구의 더 상세한 내용은 우리의 보고서(한상복·권태환 1992)와 조선문제연구소 교수들(김영모 1992 : 15-44 및 59-66)의 논문에 포함되어 있다.

## II. 이주의 역사

### 1. 개척민의 월경 이주

조선족이 오늘날 연변 지역의 대부분을 일컫는 간도<sup>1)</sup>지역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조선족 거주지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약 130 여년을 거슬러 올라갈 따름이다. 여러가지 자료에 따르면 조선조 후기에 비교적 집단적인 간도로의 이동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86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당시의 이동은 주로 10년간에 걸친 육진<합경도> 지방의 흉년의 결과로서 발생한 것이었다. 주로 합경도 지방의 헐벗은 농민들이 새로운 경작지를 찾아 비교적 사람이 살지 않으면서 땅이 비옥한 청나라 영토의 간도로 이주한 것이 보통 중국의 현대 조선족 집거지 형성의 시발로 여겨지고 있다. 1860년대 간도 지방의 조선족 인구는 77,000명으로 알려져 있다(최창래 외, 1989 : 771).

만주는 청조의 성지로 여겨져 봉금 지역으로 선포되어 사람들이 이주가 금지 되었고, 특히 조선족의 원경은 심한 규제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부터 그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조선족의 이주는 물론 다른 지방의 한족들 가운데 이 곳으로 이주하는 사람의 수도 늘어났다. 청나라 정부가 1875년에 압록강 대안 지대의 농토를 경작하는 조선족의 정착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민관리처를 설치한 것은 이미 당시 만주 지역에 조선족의 정착 이주가 시작되었음을 뜻한다(고승제, 1973 : 18). 이와 비슷한 시기에 한족의 만주로의 이동도 시작된다. 한편 오늘날 동북3성으로 구성되는 만주에서 발생한 만주족은 청조의 성립 이후 중국의 지배 계급이 됨에 따라 중국 여러곳에 흩어져 살게 되어, 실상 이 곳에 거주하는 만주족은 규모가 별로 크지 않았다. 특히 간도 지방에는 만주족의 수가 매우 적었다. 여하간 1860년대 간도에 사는 한족의 인구는 약 23,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최

---

1) 현재의 연변 지역 가운데 돈화가 제외됨.

창래 외, 1989 : 771). 조선족은 주로 남에서 북으로,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하였다 고 하면, 한족의 만주로의 이동은 서에서 동으로 남에서 북으로의 이동 양식을 보였다.”

일제에 의해 조선이 합병되면서 조선족의 만주로의 이동은 매우 빠른 성장을 보인다. 1910년 합병 당시 만주<sup>3)</sup>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약 20만, 그 가운데 약 15만명이 간도 지방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1912년 간도에 거주하는 한족은 약 49,000명으로 집계되었다. 즉, 조선족과 한족 모두 1860년에서 1910년 이전의 조선에서의 중국 또는 만주로의 인구이동의 규모는 별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적어도 간도 지방 조선족 인구 증가의 절반은 인구의 자연증가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족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일제의 조선 점령시기인 1910-40년 사이의 조선족 및 한족의 인구의 증가는 엄청나다. 1910년 20만에 불과하던 만주 지역의 조선족 수가 1940년에는 약 145만명으로 7배의 증가를 보인다(표1 참조). 그리고 간도 지방의 조선족 인구는 15만에서 62만명으로 4배의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표2 참조). 한편, 주로 한족으로 구성된 간도에 거주하는 한족의 숫자도 1945년 약 36만으로 늘어나 조선족에 비해 훨씬 빠른 증가를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1945년 일제의 멸망 당시 연변 지역의 인구는 개략적으로 총 100만명, 그 가운데 조선족이 64만, 한족이 36만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하간, 일제 시대의 간도 지방의 조선족 인구는 그 80-85%가 인구 이동에 의하여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만주 또는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인구 이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또한 한족의 이주가 조선족에 비해 상대적인 규모에 있어서는 더 컸지만, 간도 즉 연변 지역은 대부분이 조선족에 의해 개발, 발전된 곳이라는 사실도 간도 지역의 인구 변화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만주 조선족 이주의 개괄을 통해 명백한 것은 조선족 이주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제 시대의 이주라는 점이다. 즉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

2) 20세기 이전의 조선족의 개척 이민에 대해서는 연변조선족략사 편찬조, 「조선족략사」, 1986, 1~13쪽 참조.

3) 현재의 동북3성, 즉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과 지역의 경계가 거의 일치한다.

조선족 가운데 일제 시대의 이주자가 만주 전체로는 90%이상, 연변 지역의 경우에는 70%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중국 조선족의 생활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도 일제 시대의 조선족의 이주 배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면 이제 일제 시대의 이주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 2. 1910년대 및 1920년대의 이주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제 시대 중국 조선족 인구의 증가 현상은 시기적으로 크게 4개의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 첫번째 단계는 1910년에서 20년에 이르는 한일합방 초기의 시기로 이 때에 조선족 인구는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다. 다음 1920년대에는 인구증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다시 1930년대에는 조선족 인구는 급격한 증가를 보이다가, 1940년 이후 인구성장은 소강상태에 빠진다. 이러한 현상은 이주 인구의 성격, 이주의 기본 동기, 일본의 농업, 노동 및 이주 정책, 당시의 정치적 상황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10년 일제의 조선 합병 당시 중국의 조선족 인구에 대한 믿을만한 정보는 찾기 어렵다. 일본 자료에 따르면 간도를 제외한 지역에 약 5만 2천명의 조선족이 있었고, 간도에 약 15만명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김성호(1991)는 1910년 연변(당시 연길, 화룡, 왕청, 훈춘)에 거주하는 조선족 인구를 약 11만명으로 밝히고 있다. 이 두 수치의 사이에 나타나는 약 4만명의 차이의 근

- 
- 4) 실제 1990년 우리의 연변 지역 조사에서는 1910년 이전에 조선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경우가 약 10%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조상이 언제 이동하였는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15% 정도에 달했다. 만약 ‘모르겠다’는 응답자의 대부분의 초기 이주자들의 후예라고 가정하면, 일제의 합병 이전의 조선족 이주자의 비율은 적어도 20%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
  - 5) 한창호(1982)는 한국의 일제 시대를 산업 정책 전개에 따라 3개의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제1단계는 1905년에서 1918년에 이르는 기간으로 식민 작업 기초 시기로, 제2단계는 1919~29년에 걸친 식량 공급 기지로서의 식민지 조성 기간, 제3단계는 1930년 이후 일본의 만주 침략, 미국과의 전쟁 수행의 병참 기지로서 식민지 발전 시기이다.

〈표1〉 중국 조선족 인구의 성장추세 (1910~44)

연 도	인 구 수	연평균 성장율	성 비 <sup>1)</sup>
1910	220,000 <sup>2)</sup>	-	-
1912	238,403	-	130.4
1915	282,070	3.36	127.1
1920	459,427	9.76	132.6
1925	531,973	2.93	119.4
1930	607,119	2.64	115.9
1935	826,570	6.17	115.1
1940 <sup>3)</sup>	1,450,384	11.24	119.5
1941	1,442,428	-0.55	118.3
1944	1,658,572 <sup>4)</sup>	3.35	-

주 : 인구는 각년도의 동일날자의 것으로 간주하여 성장율을 계산하였음.

- (1) 성비는 만주인구만을 대상으로 한것임. 총인구에는 관동주에 거주하는 극소수의 조선인이 포함됨.
- (2) 일본 통계로부터의 추정값임.
- (3) 1940년 10월 1일자 임시국세조사 자료임.
- (4) 1940~44년도 평균임.

자료 : 만주국 국무원 총무청, 「임시국세조사보고」 1940, 만주국 경무총국 「만주제국 현중인구통계」 1941 및 일본 외무성 동아국, 「만주국 급 중화민국 재류본방인 급 외국인 인구 통계표」, 여러 연도.

원을 알 수 없다. 단지, 일본 정부의 추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간도성이 김성호의 자료에서 사용한 연변보다 넓은 지역을 포괄한 것이 아닌가 추측할 따름이다. 보다 체계적인 집계 자료는 1912년부터 제시된다. 1912년 만주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수는 〈표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약 24만명에 달한다. 그 가운데 간도성에 거주하는 사람은 16만 3천명으로 전체 조선족 인구의 75%를 넘고 있다. 한편 만주 조선족 가운데 남자는 13만 3천, 여자는 10만 2천으로 성비<sup>6)</sup>는 130을 넘고 있다. 이

6) 여기서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를 가리킨다.

러한 높은 성비는 주로 이입자 중 남자의 비율이 매우 큰데 기인한다.

〈표2〉 간도성(연변지역)의 조선족 인구의 추세(1910~44)

연도	인구수	연평균 성장률(%)	성비	간도 조선족 인구 비율(%)	
				대중국조선족	대간도총인구
1910 <sup>1</sup>	150,000				68.2
1912	163,000			68.4	76.9
1922	323,806	6.84		62.8	82.0
1926	356,016	2.43		65.7	80.5
1930	394,937	2.59	112.4	65.1	70.4
1935	469,461	3.46	109.9 <sup>2</sup>	56.8	75.6
1940 <sup>3</sup>	616,019	5.72	107.9	42.5	72.6
1941	611,728	-0.70	109.8	42.4	73.6
1944	631,733	0.80		38.9 <sup>4</sup>	

주 : (1) 당시 일본 정부에 의한 개괄 추정.

(2) 1936년 수치임.

(3) 1940년 10월 1일자 임시국세조사 자료임

(4) 1940~44년도 평균임.

자료 : 만주국 국무원 총무청, 「임시국세조사보고」, 1940,

만주국 경무총국 「만주제국 현주민구통계」, 1941,

고승재, 「한국이민사연구」, 1973(1912년도) 및 일본 외무성 동양국, 「만주국  
급 외국인 인구 통계표」, 여러 연도.

만주의 조선족 인구는 1915년에 28만 2천명으로, 그리고 1920년에는 46만명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이를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1912-15년에는 3.36%, 1915-20년 사이에는 9.74%의 높은 인구 성장률<sup>7)</sup>이 나온다. 당시의 정상 상태에서의 조선족 인구의 연간 자연 성장률을 높게 잡아 1% 정도로 본다면 1910년대 전반기의 인구 성장의 70%이상, 그리고 1910년대 후반기의 약 90%이상이 조선으로부터의

7)  $r=1/n \cdot 1_n(P_2/P_1)$ 의 공식에 의해 계산된 것임.



인구 이동에 의해 인구 성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간도 지방의 인구는 1912년 16만 3천명에서 1922년 32만 3천명으로 비슷한 그러나 약간 느린 증가 속도를 보였다. 이러한 한일합방 직후, 특히 1915-20년 사이의 급격한 조선족 인구 성장은 한일합방에 따른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인구 유입과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인구 유입의 두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전자는 독립운동 집단의 이주가, 후자는 침략후 경제적 수탈로 인해 호구지책이 어려워진 농민들의 이동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정치적인 이주는 한일합방이 있었던 1910년과 독립운동이 일어난 1919년에 다른 해 보다 많은 수의 조선인이 간도 또는 만주로 유입된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승제, 1973 : 90). 그러나 정치적인 이주는 당시의 여러가지 조건으로 보아 매우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연변의 조선족 학자들도 이에 대해서는 별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당시 이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일제의 경제적 수탈로 인한 극심한 빈곤화라고 할 수 있다.

1910-18년에 걸친 식민지 정부의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많은 조선의 농민은 토지를 잃게 되고, 소작농의 경우 농사지을 땅을 잃게 되어, 농촌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들의 선택은 도시나 일본으로의 노동 이동과 만주로의 농업 이동밖에 없었다. 그러나 일제 초기에는 도시의 발달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또한 일본으로의 노동 이동의 문호도 별로 열리지 않아, 농촌으로부터 쫓겨난 많은 농민이 만주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판단된다.<sup>8)</sup> 1911년에 공포된 산림령도 화전민의 생계를 위협하여 이들의 만주로의 이주에 중요한 공헌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승제, 1973 : 36-37). 또한 1918년과 1919년에 걸친 남한 농업지대의 대흉작도 농촌으로부터 만주로의 이주의 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거기에 더하여 1909년 9월에 체결된 중국의 청조와 일본과의 간도협약도 일제 초치의 만주로의 이동을 촉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협약은 조선과 중국의 국경은 현재의 두만강으로 규정함으로써 조선에게는 영토

8) 박재일(1957)과 김철(1965)의 자료에 의하면 1911~20년 사이의 일본으로의 이주자와 만주로의 이주자의 수는 약 35,000명과 30만명으로 9배의 차이를 보인다. 일본으로의 이동은 1910대 말 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득수치, 특히 만주의 수치는 실제 증가 인구의 수를 넘는 것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의 수가 빠진, 그리고 단기 이주자가 포함된 총 이출자로 생각된다.

의 양보하는 매우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도록 강요하였지만, 간도 지역의 개척 이주를 허용함으로써 조선족의 자유로운 이주의 길을 열어 놓았다(고승제, 1973 : 17-26). 이들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 나타난 조선 농민의 소작화와, 일본인 지주와 동양척식회사 등에 의해 전개된 조선농민의 체계적인 착취와 궁핍화이었다. 이는 일제 시대를 통털어 조선족의 이농과 해외 이주 및 도시로의 이주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20년대에 들어 서면서 만주의 조선족 인구의 증가 속도는 크게 떨어져 1920-25년에는 2.9%, 1925-30년에는 2.6%의 연평균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조선으로부터 만주로의 이민의 급격한 감소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결코 조선의 농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거나 나아졌기 때문에 나타난 것은 아니다. 당시 경제적인 궁핍으로 만주로 떠나는 농민의 이야기는 신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승제, 1973 : 35 참조). 전체적으로 볼 때 1920년대에 들어, 조선의 이농 인구 규모는 크게 늘고 있다. 1915-20년에 비하여 1920-25년에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인구의 비율은 약 두배 가량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일본이 조선의 싼 노동력을 선호하면서 일본으로 이동하는 사람의 수가 크게 늘어난다. 즉, 1920년대 전반기에 있어서 조선 이농민의 이동 목표지는 일본과 국내 도시로 바뀌었고, 반면 만주로의 이주자 수는 급격한 감소를 기록하게 되었다. 192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전반적으로 이농자 수는 계속 늘어난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국내 도시에 정착하는 사람의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대신 일본과 만주로 이동하는 사람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 기간에 일본과 만주로 이동한 조선인은 약 23만 4천으로 추정되며, 그 1/3가량이 만주로 향한 것으로 판단된다(권태환, 1990 : 267).

1910년대와 대조적인 1920년대의 인구 현상은 성비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1910년대의 급격한 이민에 의한 인구 성장은 심한 성비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에 있어서는 성비가, 아직 상당히 높지만, 크게 떨어지는 현상을 보인다. 1920년에 여자 100명당 남자 132.6명의 심한 남녀의 불균형을 기록하였던 만주의 조선족 인구의 성비는 1925년에 이르러서는 119.4로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1930년에는 115.9로 감소한다. 이와 같은 성비의 변화는 두가지 요인에 의해

설명된다. 첫째는, 이입 인구의 감소에 따른 효과이다. 이입 인구가 줄면 인구 증가에서 자연증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그리고 자연 증가로 인해 늘어난 인구의 성비는 대체적으로 균형을 이룬다. 따라서 자연 증가가 총 인구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성비가 보다 균형을 유지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둘째는 이입자의 성비가 보다 균형을 이루거나 과거의 성 선택성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주자의 성별 구성이 보다 균형을 이루게 되면 점진적으로 전체 인구의 성비는 균형을 이루는 쪽으로 바뀌게 된다. 성 선택성이 바뀌면 보다 급진적인 성비의 변화가 일어난다. 1920년대의 성비의 저하는 어느 정도는 이러한 이입 인구의 감소와 남자 개인위주의 이동에서 가족 단위의 이동 내지 가족 합류 이동으로의 이동 형태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3. 일제의 만주 침략과 조선족의 이주

1930년대에 들어 서면서 만주와 간도의 조선족 인구는 또다시 급격한 성장을 보인다. 특히 1930년대 후반에 있어서 인구 성장은 매우 괄목할 만하다. 1930년 60만명을 약간 넘던 만주이 조선족은 1940년에는 145만으로 배이상 늘고 있다. 간도의 조선족 인구도 약 40만에서 62만으로 73%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간도와 만주의 다른 지역을 구분하면, 간도의 인구증가는 다른 지역의 1/3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러한 만주 조선족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조선으로부터 일본으로의 이주 인구의 증가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1930년대의 총체적인 조선으로부터의 이입자 수는 만주의 일본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1930년대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때, 만주는 1935년 이후에 이입자 수가 급증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1930년대 전·후반기 사이에 인구 증가의 정도가 만주에 비해 매우 완만하다. 한편, 만주 안에서도 간도와 다른 지역 사이의 매우 심한 차별적인 인구 성장으로 인해, 조선족 가운데 간도 거주자의 비율은 1930년 65.2%에서 1940년에는 42.5%로 급격히 떨어진다.

조선에서의 인구 유출 조건은 1930년대에 강화되었다. 우선 1929년 세계공황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식민지 정책도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일본은 경제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황으로 인해 발생한 유효 자본의 해외 진출 전략으로서 1931년 만

주 사변을 일으킨다. 이에 따라 조선에서는 만주 침략의 배후지로서 전략 군수 사업이 발전하게 된다. 반대로 노동력이 대규모 군수 사업에 동원되면서 경공업이 몰락하고 이로 인해 도시의 실업자가 많이 발생한다. 또 경제 공황은 농산물 가격의 인하를 가져와 대량 이농현상을 발생시킨다. 한편, 조선총독부는 1931년 만주의 침략과 조선의 파산 농민의 처리를 위해 조선 농민을 대량으로 만주에 이주시킬 계획을 세운다” 당시 (조)선인이민회사 설립 계획안에 따르면, 총독부는 매년 조선농가 1만호의 인구 5만명씩을 15년간 만주에 이주시킬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그리고 1932년에는 그 수를 배로 늘려 잡고, 수정된 안에 입각해 이민을 위한 토지 획득과 이민 모집방안 등을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계획은 1932년 9·18 만주사변 이전에는 조선족 이민이 일본의 만주에 대한 세력 확장에 도움을 주리라는 판단에 따라 만주를 관할하는 일본 관동군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9·18 만주사변 이후 관동군은 조선족을 항일과 반일의 선봉으로 간주하여 치안 유지에 방해가 되는 조선인 이민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이러한 이민 정책을 적극 추진하려는 조선총독부와 이를 억제하려는 관동군의 대립은 관동군이 조선 이민을 ‘제한하지 않을 정도로 방임’하는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해소되었다. 그 결과 1933년 이후 조선인의 이민이 자유로워졌고, 조선으로부터 만주로 이주하는 사람의 수는 급격한 증가를 보이게 된다. 그러나 정식으로 집단 이민이 실현된 것은 1936년 8월에 동척이 자작농 창정 정책을 조선족 집단 이민에 대해 실시키로 하면서부터이다. 1936년 만주의 치안이 안정됨에 따라 일본 관동군은 그동안 침체 상태에 빠졌던 만주의 농업 발전을 위해 조선족 집단 이주 정책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1937년 처음으로 간도와 봉천 영구현에 조선족 농가 2500호가 배치되었다.

연변의 경우 집단 이주자들은 주로 인구가 적고 개발이 거의 되지 않았던 왕청과 안도에 배치되었다. 즉 1930년대 후반기의 만주 조선족 인구의 급증은 이와 같은 정책적 배경에 의해 설명된다. 그러나 조선족의 대규모 유입의 근본적인 원인은 조선 농업의 파탄과 노임의 궁핍화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집단이주 이

9) 이하 집단 이주 정책에 관한 논의는 류병호, 1989. “30년대 조선족 이주민” 190~205쪽을 요약한 것임.

전에도 조선족 자유 이민은 점차 개인 또는 가구 단독 이주 보다는 같은 고장의 여러 가구나 개인이 함께 이주하여, 이주후 마을을 형성하여 함께 생활하는 형태의 이주를 하게 되는 경향을 띠었다. 또한 이주자들도 처음부터 이미 형성된 연결망을 통해 같은 고장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주로 조선의 남쪽 농업 지역을 기원지로 하는 이들 후기 이민은 이미 조선족, 특히 함경도 출신으로 포화 상태인 간도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보다 북쪽으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 상당수의 이민은 뒤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일제의 안전농촌 건설 계획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정착하게 된다. 이 역시 간도 이외의 만주 지역에 이주민이 몰리게 되는 이유의 하나이다.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시작하면서 조선의 이민 상황은 급변하게 된다. 일본은 엄청난 조선 노동력을 강제 동원하여 일본으로 파견하였고, 그 결과 만주로의 이주의 규모는 크게 줄게 된다. 간도의 경우 조선족 인구는 자연증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이 세계 제2차 대전에서 패망한 후 만주 조선족 가운데서도 대규모 조선으로 귀화현상이 발생한다. 1940년의 만주 국세조사에 따르면 당시 만주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 인구는 총 145만명으로, 그리고 간도 지역의 조선족은 62만명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일제 말에 만주에 거주하던 조선족 인구를 약 170만으로 추정한다면, 그리고 1953년의 중국 인구 조사에 잡힌 조선족 인구 112만명을 비교적 정확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해방 직후 만주로부터 조선으로 귀화한 사람은 총 인구의 40%인 70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1944년 조선족 인구 중 간도 지방 거주자의 비율 38.1%와 1953년 센서스에 나타난 49.7%를 비교하면, 귀환자의 비율은 이주의 역사가 비교적 오랜 간도 지방 보다는 다른 만주 지역에서 훨씬 더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제의 멸망 이후 만주에 정착하게 된 조선족은 약 100만으로, 이들은 간도와 기타 지역에 각각 50만명씩 나누어 거주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조선으로의 귀환자는 간도 지역에서 25%에 조금 못 미치는 15만, 다른 지역에서는 50%가 넘는 55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러한 귀환인구 추계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귀환의 가능성이 비교적 이주의 역사가 짧아 아직 정착의 기반을 제대로 마련할 수 없었던 사람들 가운데 특히 높았으리라는 점이다.

일본의 패망 이후 간도 지방의 한족도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를 경험한다. 한족의 이주는 특히 소위 해방전쟁으로 알려진 신중국 건설을 위한 국민당 군대와와의 전투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항일전쟁 말기에서 1949년 해방전쟁이 끝나는 약 5년동안 연변 지역의 인구는 약 100만에서 83만 5천명으로 17% 가량의 감소를 나타낸다. 그 가운데 조선족 인구는 약 17% 그리고 한족 인구는 약 20%의 감소를 나타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최창래 외, 1989 : 771). 즉 해방전쟁 기간에 연변 지역에서는 한족 인구의 감소가 더 컸음을 알 수 있다. 여하간 신중국 성립 당시 연변의 조선족과 한족의 비는 65 : 35 정도이었고, 총 인구 가운데 조선족의 비율은 63.4%에 달했다. 다시 말해 일제의 패망 이후 연변지역으로부터도 상당한 수의 조선족 인구가 조선으로 귀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변은 조선족이 압도적인 지역의 성격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중국의 성립 이후 한족의 인구 유입은 계속되는데 반해 조선족은 한국동란 기간에 북한 지역으로, 그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인구가 유출되고 조선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단절되면서 한족 인구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게 된다.

#### 4. 이주민의 선택성과 사회적 성격

보통 개척지인 성격의 인구 이동이나 초기의 해외 이주는 강한 인구학적 선택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동은 주로 젊은 노동력 인구에 집중되며 여성보다는 남성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인구 이동의 규모가 커지고 역사가 길어지면 이동의 선택성은 약화되거나 바뀌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만주로 이주한 조선족의 인구학적 선택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1940년 만주국 임시 국세조사 자료로부터 만주로 이동한 조선족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가능하다. 특히 인구학적 선택성은 같은 해 실시된 조선의 국세조사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간접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표3〉에는 1940년 만주 조선족 인구의 남녀 각각에 대한 5세 간격별 연령 구성과 성비가 주어져 있다. 우선 연령별 구성을 같은 해 조선의 조선족 인구와 비교할 때 만주 조선족 인구는 남녀 모두에 있어 1-14세의 아동 연령층에 있어서는 낮은 비율을, 15-39세에서는 반대로 높은 비율을, 그리고 40세 이후부터는 다시

〈표3〉 중국 및 조선의 조선족 인구의 연령 및 성구성(1940)

연령	인구 수			인구 비율 (%)			성비
	계	남	여	계	남	여	
(A) 만주의 조선족							
합 계	1,450,384	789,575	660,809	100.0	100.1	99.8	119.5
0-4	212,291	106,973	105,318	14.6	13.5	15.9	101.6
5-9	173,927	88,640	85,287	12.0	11.2	12.9	103.9
10-14	154,497	80,870	73,627	10.7	10.2	11.1	109.8
15-19	152,830	82,644	70,186	10.5	10.2	10.6	117.7
20-24	147,446	84,153	63,293	10.2	10.7	9.6	133.0
25-29	136,303	78,812	57,491	9.4	10.0	8.7	137.1
30-34	107,863	62,023	45,840	7.4	7.9	6.9	135.3
45-39	82,373	47,219	35,154	5.7	6.0	5.3	134.3
40-44	71,191	41,167	30,024	4.9	5.2	4.5	137.1
45-49	58,954	33,216	25,738	4.1	4.2	3.9	129.1
50-54	47,531	26,861	20,670	3.3	3.4	3.1	130.0
55-59	38,134	20,997	17,137	2.6	2.7	2.6	122.5
60+	67,004	35,975	31,029	4.6	4.6	4.7	115.9
모름	40	25	15	-	-	-	-
(B) 간도의 조선족							
합 계	616,019	319,747	296,272	100.1	99.8	99.9	107.9
0-4	95,432	47,410	48,022	15.5	14.8	16.2	98.7
5-9	76,925	38,983	37,942	12.5	12.0	12.8	102.7
10-14	71,810	37,295	34,515	11.7	11.7	11.6	108.1
15-19	64,191	33,358	30,833	10.4	10.4	10.4	108.2
20-24	54,991	28,852	26,139	8.9	9.0	8.8	110.4
25-29	48,995	25,806	23,189	8.0	8.1	7.8	111.3
30-34	40,561	21,244	19,317	6.6	6.6	6.5	110.0
35-39	32,815	17,349	15,466	5.3	5.4	5.2	112.2
40-44	28,849	15,536	13,313	4.7	4.9	4.5	116.7
45-49	26,965	14,239	12,726	4.4	4.5	4.3	111.9
50-54	21,220	11,507	9,713	3.4	3.6	3.3	118.5
55-59	18,280	9,700	8,580	3.0	3.0	2.9	113.1
60+	34,985	18,468	16,517	5.7	5.8	5.6	111.8
(C) 조선의 조선족							
합 계	23547465	11839295	11708170	100.0	100.0	100.0	101.1
0-4	3897658	1974157	1923501	16.6	16.7	16.4	102.6
5-9	3237238	1655425	1581813	13.7	14.0	13.5	104.7
10-14	2721264	1398317	1322947	11.6	11.8	11.2	105.7
15-19	2263663	1142250	1121413	9.6	9.6	9.6	101.9
20-24	1835093	908119	926974	7.8	7.7	8.0	98.0
25-29	1704599	845382	859217	7.2	7.1	7.3	98.4
30-34	1456721	725152	731569	6.2	6.1	6.2	99.1
35-39	1205407	606498	598909	5.1	5.1	5.1	101.3
40-44	1201302	608860	592442	5.1	5.1	5.1	102.7
45-49	1016874	515050	501824	4.3	4.4	4.3	102.6
50-54	885031	445617	439414	3.8	3.8	3.8	101.4
55-59	713241	355954	357287	3.0	3.0	3.1	99.6
60+	1409374	658514	750860	6.0	5.6	6.4	87.7

자료 : 만주국 국무원 총무청, 「임시국세조사보고 1940」 및 조선총독부,

「조선국세조사 결과요약 1940」.

낮은 비율을 나타낸다. 특히 20-29세 연령층에서 커다란 인구 비율의 차이가 관찰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체로 보다 최근의 이입 인구가 젊은 노동력 인구층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지적한다. 또한 이동 인구 규모의 상대적인 차이 때문에, 즉 이동 인구의 증가 추세로 인해, 주로 과거 이입자의 비율이 높고, 이동 인구의 평균 이주년수가 오랜 것으로 간주되는 40세 이후 집단의 비율은 만주 이주자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같은 연령집단의 조선 인구에서 보다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한편, 0-14세의 아동 연령층의 낮은 비율은 젊은 이주자들 가운데 미혼자의 비율이 높는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남녀 성비의 불균형도 전체적으로 성인 인구에 비해 출생자 수를 적게 하는데 상당히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별 선택성, 즉 이주자 가운데 남성 지배 현상은 보다 최근으로 오면서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 0-9세 아동 집단에서는 성에 따른 특별한 선택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들 집단은 대부분이 만주로 이주한 후에 태어난 아이들로 구성되었음을 뜻하기도 한다. 1940년 조선 인구의 성별 구성을 보면 15세 이후부터 성비의 급격한 감소가 관찰된다. 그리고 만주의 조선족 인구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발견된다. 이 두개의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조선으로부터 일본이나 만주로의 개인 이주를 한 사람들의 하한 연령이 15-19세 집단과 20세 이후 집단들 사이에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20세 이후에서는 조선의 같은 연령층의 성비와 비교할 때 계속 비슷한 정도의 차이를 나타낸다.

여기서 만주의 15-19세 연령층 인구 가운데에는 만주에서 출생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연령층의 성비가 바로 최근의 이주자 가운데 이동의 선택성이 낮아졌음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이동의 선택성은 이동의 역사가 오래되고 그 규모도 커지면서 오히려 줄지않고 강화된 느낌을 준다. 그것은 아마도 초기의 이주자들과 후기의 이주자들 사이의 이주자들의 이동배경이나 이동의 원인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점과, 후기의 이주자들은 초기의 이주자들에 비해 이동의 거리가 오히려 더 길어졌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초기의 이주자들은 주로 함경도, 또는 함경북도에서 바로 경계를 넘어 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족 이동이 오히려 쉬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러나 후기의 이주자들은 조선의 남부, 특히 경상도 지방의 농민이 다수를 이루었기 때문에 가족 이동의 조건은 보다 어려워 졌으리라 추측이 가능하다. <표1>에서 보듯이 후기에 오면 올수록 만주 지역의 조선족 인구의 전체적인 남녀 비율이 보다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입자들의 남녀 비율이 점점 비슷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조선족 가운데 이입민의 비율이 낮아지고 반대로 만주에서 태어난 제2세대의 비율이 올라가는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주로 이입의 역사가 비교적 오래되고 또한 근거리 이주자의 비율이 높은 간도 지방의 조선족 인구 구성은 만주 전체의 그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표3-B>에 제시되어 있듯이 연령별 인구 구성도 조선의 그것과 그렇게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성비도 만주 전체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1940년 간도 조선족 인구의 남녀 비율도, 조선의 조선족 보다는 상당히 높은 남성 인구의 비율을 보이지만, 만주 전체 조선족에 비해서는 비교적 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변 조선족 인구는 약간씩이나마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비의 불균형이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55세 이상 인구의 남녀 구성을 가지고 판단할 때, 아마도 간도 지방에 이주한 사람들의 성비는 120을 조금 넘지 않았나 추측된다. 연령이 낮을수록 비교적 남녀 구성이 균형을 이루는 것은 바로 비교적 오랜 이민의 역사와 이로 인한 출생의 증가에 의해 쉽게 설명된다.

만약 만주에서 간도 지방을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따진다면, 조선족 이입자들이 남녀 비율은 150 대 100 정도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간도와 다른 지역 사이에 이입자의 성 구성이 큰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은, 그들의 연령 구성과 혼인 상태도 커다란 차이를 보였을 것이라는 가정을 가능케 한다. 아마도 간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비교적 연령이 낮고, 그 가운데 미혼자의 비율도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또한 간도와 다른 지역 사이에 이동 형태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제의 패망 이후 간도와 다른 지역 사이에 조선으로의 귀환자 비율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상당한 부분 이해가 가능하다. 간도에서는 단독 이주자들의 귀환율이 높았겠지만, 여하간 1990년에 실시한 우리의 연변 40개 조선족 마을 조사 자료에 의하면 도시 거주 조

〈표4〉 만주 및 간도의 민족별 인구구성과 간도 조선족의 지역분포, 1935 및 1940

	1935		1940			연성 평균 증가 율 (%)
	총인구	구성비	총인구	구성비	성비	
만주총인구	33,499,862	100.1	43,202,880	100.1	123.9	5.1
중국인	32,277,217	96.4	40,858,473	94.6	117.4	4.7
일본족	333,005	1.0	819,614	1.9	142.1	18.0
조선족	823,319	2.5	1,450,384	3.4	119.5	11.3
기타	66,321	0.2	74,409	0.2	99.8	2.3
간도총인구	621,334	100.0	848,197	100.0	122.6	6.2
중국인	141,759	22.8	211,953	25.0	178.9	8.0
일본족	9,977	1.6	20,055	2.4	130.4	14.0
조선족	469,461	75.6	616,019	72.6	107.9	5.4
기타	137	0.0	170	0.0	150.0	4.3
간도조선족	469,461	99.9	616,019	100.0	107.9	5.4
연길현	262,183	55.8	299,191	48.6	105.8	2.6
왕청현	36,306	7	103,394	16.8	114.4	20.9
훈춘현	56,666	12.1	69,065	11.2	110.9	4.0
화통현	111,426	23.7	125,606	20.4	104.5	2.4
안도현	2,880	0.6	18,763	3.0	121.2	37.5

주 : 1935년 만주 인구는 관동주 인구를 제외한 것임.

자료 : 일본 외무성 동아국, 「만주국 급 중화민국 재류본방인 급 외국인 인구 통계표」  
1935 및 만주국 국무원 총무청, 「임시국세조사보고」, 1940.

선족 호구 가운데 74.7%가 그리고 농촌 거주 호구의 87.2%가 최초 중국으로의 이주가 가족 이동이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반면 단독 이동 또는 단독 이동후 식구

합류는 도시와 농촌 각각 12.5%와 5.5%로 조사되었다.<sup>10)</sup> 이 자료는 또한 부분적으로 단독 이주자들이 도시 지역이나 중심부로 이주할 가능성이 더 높았을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1930년대 후반기의 집단 이주는 만주 지역의 조선족 분포는 물론 간도 즉 연변 지역의 조선족 분포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조선족 인구 중 집단이주 지역으로 선정된 왕청과 안도 거주자의 비율이 크게 늘고, 연길(용정, 도문 포함), 훈춘, 화룡 등의 조선족 집거 지구의 거주자 비율은 줄고 있다. 1935년과 1940년의 두 국세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선족 가운데 왕청 거주자의 비율은 이 5년 사이에 7.7%에서 16.8%로 배이상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안도의 비율은 0.6%에서 3%로 늘고 있다. 반면 연길현 거주자의 비율은 55.8%에서 48.6%로 감소하였다(표4 참조). 한편, 간도의 여러지역들 사이에서도 이주의 역사에 따른 성비의 차이는 뚜렷하다. 1940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에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안도에서는 전체 인구의 성비가 120이 넘고 용청의 경우 115에 가까운데 비해, 이주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화룡과 연길에서는 성비가 105를 전후하고 있다.

만주 조선족의 사회적 성격을 아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는 아마도 직업 구성일 것이다. 이들 조선족의 직업 구성에 관한 자료로서는 1941년 10월 1일자 전체 인구조사 자료가 있다. 자료의 질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 자료로부터 만주 조선족 인구의 직업과 주요 종사 산업이 무엇인가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표5>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만주의 조선족 인구는 57.2%가 일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남자의 경우 유업자는 75.6%인데 비해 여자는 35.4%에 불과하였다. 그 가운데 간도 지방의 조선족의 유업자 비율은 만주 지방 평균보다 약 4% 높게 조사되었다. 특히 여자의 경우 7.3%의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이를 간도와 비간도 지방으로 나누면 남자의 차이는 약 4%, 여자는 10%이상, 그리고 전체적인 차이는 6% 정도에 이른다. 즉, 간도와 비간도 사이에는 조선족의 유업 상태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 간도의 조선족 유업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곳 조선족이 비교적 경제적으로 다른 지역의 조선족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였

10) 나머지 12.7%와 9.3%는 모르겠다는 경우임.

〈표5〉 중국 및 간도 조선족의 직업구성(%) , 1941

직업	만주			간도		
	계	남	여	계	남	여
유업자 비율	57.2	75.6	35.4	61.4	78.0	43.1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업	69.9	68.9	72.5	69.8	67.9	73.7
농경	68.3	66.7	72.1	68.0	65.4	73.3
양잠	0.0	0.0	0.1	0.0	0.0	0.1
축산	0.2	0.2	0.1	0.3	0.3	0.1
어업	1.4	1.9	0.2	1.5	2.2	0.1
광업	0.0	0.0	0.0	0.0	0.0	0.0
금속	1.2	1.5	0.2	1.2	1.8	0.1
비금속	0.4	0.5	0.1	0.2	0.3	0.0
채염	0.8	1.0	0.1	1.1	1.6	0.1
공업	0.0	0.0	0.0	-	-	-
요업	5.2	6.2	2.8	2.1	2.6	1.0
돌가공	0.3	0.4	0.0	0.1	0.1	0.0
금속 기계 운반	0.3	0.4	0.1	0.1	0.2	0.0
정밀	0.1	0.1	0.1	0.1	0.1	0.0
화학	0.1	0.1	0.1	0.0	0.0	0.0
섬유	0.1	0.1	0.1	0.0	0.0	-
피복	0.4	0.4	0.3	0.2	0.2	0.2
종이 인쇄	0.2	0.3	0.1	0.1	0.1	0.0
피혁 모	0.1	0.1	0.0	0.0	0.0	-
목 축제품	0.2	0.2	0.1	0.0	0.0	-
식품	0.8	0.8	0.9	0.4	0.5	0.4
토목	1.6	2.1	0.4	0.6	0.8	0.1
전기	0.3	0.4	0.1	0.1	0.2	-
기타	0.7	0.8	0.5	0.3	0.4	0.2
상업	6.5	6.5	6.5	7.1	8.1	5.0
상업	4.4	5.0	2.8	5.1	6.5	2.5
금융 보험	0.1	0.1	0.2	0.1	0.1	0.1
접재	1.9	1.3	3.5	1.9	1.6	2.5
교통	0.9	1.1	0.3	0.5	0.6	0.2
통신	0.2	0.2	0.2	0.2	0.2	0.1
운수	0.6	0.8	0.2	0.3	0.4	0.1
공무 및 자유	7.6	8.2	6.0	8.5	9.4	6.6
관리	2.0	2.4	1.0	1.9	2.3	0.9
법무	0.1	0.1	0.0	0.0	0.0	0.0
교육	0.4	0.5	0.3	0.3	0.3	0.2
종교	0.3	0.3	0.4	0.4	0.3	0.5
의료	0.4	0.4	0.4	0.3	0.4	0.2
서기직	0.5	0.5	0.3	0.2	0.3	0.2
문예 예술	0.1	0.1	0.0	0.0	0.0	0.0
기타 자유	3.9	4.0	3.5	5.3	5.7	4.5
가사사용	2.9	2.1	4.7	3.9	3.0	5.6
기타	6.0	5.6	7.0	6.9	6.9	7.7

자료 : 만주국 총무청 통계처 및 경무총국, 「만주제국 현주민구통계 1941」

을 가능성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부분적으로 조선에서의 기원지의 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을 수도 있다. 여성 유업자 비율의 차이는 주로 발농사를 위주로 한 함경도 지역의 경우 논농사를 주로 하는 조선의 남쪽 지역 출신에 비해 전통적으로 여성의 농업노동에의 참여율이 높았으리라는 가정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한편, 젊은 남성 인구의 비율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비간도 만주 지역의 유업자 비율이 낮았다는 것은 바로 간도 지역에 비해 다른 지역의 조선족이 더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웅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은 상당 부분이 후기 이민 및 비교적 한족과 만주족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의 이민이라는 현실과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 만주 조선족의 유업자 비율은 1930년과 1940년 조선 국세조사에서 밝혀진 조선족 유업자 비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 조선의 경우 1930년 남자의 유업 비율은 59.9%, 여자는 32.3%로(권태환, 1990 : 275). 그리고 1940년에는 53.7%와 21.9%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일차적으로는 인구 구조의 차이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민 집단의 노동력 연령층에의 인구 집중이 유업자율을 높이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업자들의 직업은 농업에 집중되어 있다. 총 유업자의 70%가 농목림업 종사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농업종사자가 68.3%, 기타 임업과 축산종사자는 1.6%에 불과하다. 한편, 공업 및 건축 노동자는 총유업자의 5.2%에 불과하였다. 순수 상업 종사자는 4.4% 그리고接客업 종사자는 1.9%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각종 주요 공무자유직 종사자는 3.7% 그리고 기타 자유직 종사자는 3.9%로 조사되었다. 가사고용인도 2.9%에 달하고 있어 조선족의 비농 직업으로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남녀별로는, 공업 및 건축 노동직의 경우 남자 종사자의 비율이 여자에 비해 배 이상 높다. 장사와 운수직 및 공무직에서도 남자 종사자의 비율이 훨씬 높다. 반대로,接客 종사자와 가사고용인의 경우에는 여성 종사자의 비율이 훨씬 높다. 그리고 여성 유업자중 농업 종사자의 비율은 남성의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만주 조선족의 직업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해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직업 구성에 있어서 남녀별 차이는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간도 지방의 직업 구성도 만주 전체의 구성과 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sup>11)</sup> 가장 큰 차이는 간도의 경우 소위 막노동자 내지 하층 노동자로 간주되는 공업 및 건축 노동자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대신 공무자유업 및 상업 종사자와 가사고용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5. 이주민의 생활 상태

만주로 이주한 조선족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는 이미 만주 조선족을 대상으로한 여러 소설에 잘 표현되어 있다. 가령, 안수길의 「북간도」나 리원길의 「설야」(1989)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족은 나쁜 자연적인 조건과 싸워야 했고, 거기에 더하여 만주족 지주의 횡포와 일제의 조직적인 착취를 견디어 내야 했다. 조선족의 비참한 생활은 다음과 같은 1921년경에 기록된 한 미국 선교사의 짤막한 증언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만주에 오는 조선인 이민의 고통은 심지어 그들의 불행울 실제로 목도한 사람조차 완전하게 묘사할 수 없다. 겨울날 영하40도의 혹한 속에서 백의를 입은 말없는 군중은 혹 10여명, 혹 20여명, 혹 50여명씩 떼를 지어서 산비탈을 기어 넘어온다. …… 거기에서 그들은 꾸준한 노력으로 중국인의 발 위에 있는 산기슭의 불모지를 쟁이와 호미질을 하여 손으로 심고 손으로 거두며 흔히 생을 유지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초근목피를 먹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다수의 사람이 식량부족으로 죽었다. 부인, 소아뿐 아니라 청년들도 동사하였다. 그들의 비참한 생활 위에는 또 질병이 닥쳐왔다. 수명의 조선인이 맨발로 강변의 깨어진 얼음장 위에 서서 바지를 걷어 올리고 두자나 깊은 얼음장이 섞인 강물을 건너가서 저편 언덕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을 신는 것을 본적이 있다. ……” (고승제, 1973 : 92에서 옮김).

나중에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직된 집단 이민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토지 제공과 농업 지원 등 생활안정의 약속하에 이주하였으나, 실제 만주에서의 실상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허허벌판에 내어 던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집단 이주자의 3분의 1가량 3년도 못되어 돌아갔다는 증언만 보아도 이주자들의

11) 참고로 1940년 조선의 조선인 유업자 중 농업 종사자의 비율은 72.3%에 달하고 있다.

생활환경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제8장 2절 참조). 연변 지역에 전해지는 다음과 같은 안도의 한 집단 이민의 경우는 그것이 극단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데에 도움을 준다. “안도의 신희(향) 서남차(서한촌)에 1937년 12월 남조선으로 부터 130여호의 이민단이 도착하였다. 그들은 나무를 대고 어름 위를 기어 올라갔고, 언 땅위에 짚을 깔고 그 곳에서 겨울을 나도록 뿌려졌다. 주위에는 한족 몇 사람이 있었고, 분주소(파출소)가 하나 있었다. 봄부터 일을 시작했으나, 일년동안에 식량부족과 장질부사가 퍼져 400명중 140명만이 살아 남을 수 있었다. 복해도 벼씨를 심어 3년째부터 출하가 시작되었으나 공출을 바치고 나면 먹을 것이 없었다. 결국 몇년 지나지 않아 거의 대부분이 죽거나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곳의 생활난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으로는 ‘부인이 미우면 서남차로 데리고 오라’는 말이 있다. (일하다 십중 팔구 죽게 된다는 뜻)” 현재 연변의 노인들은 이러한 예가 별로 특별한 것이 아닌,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처럼 얘기하고 있다. 한마디로 만주에서의 이민 생활은 조선에서의 가난의 연장이었으며, 많은 경우 조선에서보다도 더 혹독한 시련을 참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주 전이나 이주 후의 비참한 생활은 상당한 부분이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 강제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주 조선족의 반일 감정은 매우 강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만주가 조선족 항일운동의 근거지가 되면서 그곳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항일에 가담하거나 아니면 간접으로 동조하게 되었다(가령 한상복, 1989 : 611-630). 이에 따라 일제는 1930년대 초부터 각종 치안조치와 함께 조선족에 대해 거주와 이동에 통제를 실시한다. 즉 항일 무장 투쟁 세력과의 연계를 끊기 위해 ‘집단부락’과 ‘안정농촌’을 만들게 된다. 1933년 간도의 유격 근거지 부근에 집단부락을 시험적으로 실시한 이래, 1934년 말부터 ‘집단부락건설통령’을 발표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집단부락 건설이 시작되어, 1935년에만 간도에 144개의 집단부락이 건설되어 12,362명이 이곳에 거주하게 되었다. 1935-36년 사이에 다른 만주 지역에도 보급되기 시작하여 1939년에 그 총수는 13,451개에 이르렀다. 또한 일제는 새로이 조선으로부터 이주해 오는 조선인을 통제하고 이들의 항일 투쟁 부대와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해 안정농촌을 만들었다. 1932년 ‘통제와 안정’방침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1932년부터 1937년까지의 조선 이주민들을 몇개의 지역에 집중시켜 안정 농촌을 만들었다. 이러한 집단부락과 안정농촌의 건설은 정치적으로 조선족 농민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데 이용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을 일본 식민회사에 소작농이 되게 함으로서 조선족 착취의 기제로서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조선족 농민의 생활은 더욱 비참해졌다.<sup>12)</sup> 이와같은 일제의 정책은 적어도 1930년대의 조선족 이주자의 정착지와 조선족 거주지 변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조선족 집거 현상을 강화하고 조선족의 민족적 정체감과 동질성을 유지시키는데 크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된다.

### III. 생활 경험

#### 1. 생활 경험의 변화를 나타내는 시대 구분

연변 조선족은 중국에 정착한지 별로 오래지 않다. 이미 제1장에서 자세히 고찰한 바와 같이, 19세기 중엽부터 조선족의 유입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본격적인 월경 이주가 시작된 것은 1910년 일제의 조선합방 이후였다. 현재 연변의 거주자 가운데 이주 시기가 1930년 이후인 경우도 30%가 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은 대체로 100년 미만의 이주 역사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이 이주 2세대에서 4세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아 무방하다. 참고로 제시한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세 이상 응답자의 90%정도가 부모 또는 조부모 때 중국으로 이주하였고 응답하고 있다. 20세 미만까지 포함시킨다면, 현재 연변 거주 조선족의 압도적 다수(약80%가량)가 현재 2-4세대 조선족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연변에 거주 조선족은 60%-70% 가량이 함경도 출신으로 조사되었다. 최초의 중국으로의 이주는 거의 가족과 함께 이루어졌고, 이주의 주 이유는 거의 90%가 조선에서의 생활난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사 자료에서 나타난 현재 이

12) 집단부락과 안정농촌 건설에 관한 논의는 김만석, "일제의 집중영", 「봉화: 중국 조선민족 발자취 총서 3」, 1989, 198~211쪽과 「조선족략사」, 1986, 125~135쪽에서 요약함.



〈표12〉 표본조사에서 나타난 연변조선족의 이주 시기, 배경 및 특성(1990)

	도 시 지 역		농 촌 지 역	
	가 구 수	구 성 비(%)	가 구 수	구 성 비(%)
합계	550	100.0	1,450	100.0
(A) 최초 중국으로의 이주 시기				
1945년 이후	41	7.5	62	4.3
1937~44	115	20.9	313	21.6
1931~36	49	8.9	73	5.0
1919~30	106	19.3	389	26.8
1910~18	68	12.4	267	18.4
1909년 이전	54	9.8	184	12.7
모르겠다	117	21.3	162	11.2
(B) 이주당시의 호주				
본인	20	3.6	24	1.7
부모	221	40.2	541	37.3
조부	215	39.1	662	45.7
증조부	28	5.1	109	7.5
모름	66	12.0	114	7.9
(C) 처음 정착지				
연길	38	6.9	101	7.0
용정	99	18.0	370	25.5
화룡	64	11.6	221	15.2
도문	48	8.7	124	8.6
왕청	68	12.4	94	6.5
훈춘	54	9.8	140	9.7
안도	48	8.7	116	8.0
길림성	25	2.5	19	1.3
기타	19	3.5	24	1.7
모름	93	16.9	178	12.3
(D) 이주 형식				
단독	60	10.9	59	4.7
가족	411	74.7	1,264	87.2
단독+식구 나중	9	1.6	10	0.8
모름	70	12.7	117	9.3

	도 시 지 역		농 촌 지 역	
	가 구 수	구 성 비(%)	가 구 수	구 성 비(%)
(E) 조선의 고향				
합북	260	47.3	782	53.9
합남	25	4.5	46	3.2
함경도 기타	69	12.5	84	5.8
평안도	33	6.0	40	2.8
황해도	21	3.8	24	1.7
강원도	15	2.7	77	5.3
경기도	16	2.9	16	1.1
충청도	17	3.1	53	3.7
경상도	31	5.6	91	6.3
전라도	17	3.1	74	5.1
기타 남한	-	-	2	0.1
모름	46	8.4	161	11.1
(F) 이주 원인				
생활고	497	90.4	1,241	85.6
항일	6	1.1	5	0.3
집단이주	6	1.1	111	7.7
기타	3	0.5	13	0.9
모름	38	6.9	80	5.5

주 : 조사의 표본은 대표성을 가정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이 자료의 오류의 정도와 방향은 알 수 없음.

주자의 특성이 일제 시대 만주나 연변으로의 이주자의 특성과 같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조사의 대표성 문제와 함께, 이미 제1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제의 패망 이후의 대규모의 선택적인 귀환 이동에서 주로 찾을 수 있다.

지난 1세기의 연변 사회는 총체적 변화의 연속이었다. 일본의 침략, 청조의 멸망, 중국의 내전, 신 사회주의 중국의 건설, 우파투쟁과 문화혁명, 개혁 개방과 현대화의 추진 등은 그 하나하나가 정치 체제는 물론 경제, 사회 체제와 구조에도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함께 사람들의 생활 조건과 세계에도 혁명적인 변화가 강요되었다. 다시 말해 중국 또는 연변의 조선족은 세대에 따라 완전히 다

큰 경험을 가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대에 따라 명백히 구분되는 생활 세계의 차이는 조선족 사회의 구조와 갈등의 이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조선족을 포함한 현대 중국 사회의 연구에 있어 시대의 구분의 중요성은 지금까지의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시대 구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데에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현대 중국사에 있어서의 시대 구분은 단순한 연대기적 구분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대구분은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들 사건은 사회의 모든 부분, 즉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등에 걸쳐 총체적인 영향을 끼쳤다. 다른 말로 각각의 시대는 생활과 의식 전반에 걸쳐 명백히 구분된다. 따라서 현대 중국 사회에 대해 논의할 때에는 그것이 어느 시대의 것인지를 명시하지 않으면 별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조선족의 지위, 조선족의 생활과 가치도 이러한 맥락에서 살피지 않으면 잘못을 범하기 쉽다.

조선족 사회의 연구와 관련된 시대 구분은 획일적이지 않다. 연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그러나 이 차이는 본질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주로 관심의 영역에 따른 부분적인 조정의 성격을 갖는다. 가령, 연변 당사학회가 편찬한 「연변 40년기사(1949-89)」에서는 신중국이 성립된 1949년 이후의 시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 1949. 10-1956. 12 : 사회주의적 개조를 기본적으로 완성한 7년
- 1957. 1-1966. 5 :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한 10년
- 1966. 5-1976. 10 : 문화혁명의 10년
- 1976. 10-현재 :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시기

이 구분은 신중국의 일반적인 시대 구분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의 명칭에는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가령 Zong의 *Years of Trial, Turmoil and Triumph-China from 1949 to 1988*에 따르면 명칭이 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전시기, 사회주의의 발전시기, 문화혁명시기, 사회주의의 현대화시기로 주어져 있다. 한편 박경휘의 「조선민속사연구」에서는 조선족 생활양식의 변화를 다음의 6개의 시기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1987 : 374).

- 제1시기 : 1931년 9·18사변까지 : 반식민지 반봉건사회
- 제2시기 : 1931년 9·18사변이후 1945. 9. 3 해방 : 식민지 통치시기
- 제3시기 : 1945. 9. 3해방 이후 1952년 : 국내해방전쟁시기
- 제4시기 : 1953년에서 1966년 5월 : 5개년계획 건설시기
- 제5시기 : 1966년 5월에서 1976년 10월 : 문화혁명 동란기
- 제6시기 : 1977년 10월부터 현재 : 4개 현대화 건설 시기

우리 연구에서는 어떤 특정한 시대 구분의 채택을 시도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조선족의 생활사를 최소한 몇개의 구분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1945년 9월 3일 일제로부터의 해방이 있기까지의 시기를 다른 시기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에 조선족의 만주 이주가 지속되었고, 그들의 생활은 가난과 고통의 억압으로 얼룩져 있었다. 한편 조선족은 1931년 이후 일본인으로 분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제와 계속 투쟁하였다. 즉 식민주의적 착취와 극심한 가난, 일제와의 투쟁이 당시 조선족 생활의 배경을 이루었다. 또 한편 일제의 패망과 중국의 내란은 신중국에서의 조선족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조선족은 토비〈국민당 정부군〉 토벌 작전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연변 지역을 지키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조선족의 중국 공산당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가령 석현〈현재 도문시에 속함〉의 종이공장은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인쇄를 위한 종이를 거의 전적으로 공급하였다. 이로 인해 석현종이공장은 신중국이 건설된 후 중국 굴지의 기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1949년 신중국의 성립 이후 조선족의 위상은 크게 향상되었다. 신중국 창립에의 공헌으로 조선족은 비교적 좋은 정치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고 따라서 조선족 위주의 민족 정책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었다. 그중 중요한 것이 1949년 연변대학의 설립을 통한 민족 교육의 실시이다. 경제적으로는 토지개혁으로 가난한 소작농과 농업 노동자가 자작농으로 변신하였고, 도시〈성시〉의 빈곤층을 형성하던 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핵심 계층으로 부상하였다. 이와 함께 각종 조선족의 민족문화 및 민족예술 활동도 활발해졌다. 신중국 성립 이후 문화혁명이 있기 까지 중국에서는 대약진 운동, 우파투쟁이 일어났고 1960년대 초에는 소련과의 관계 악화로 매우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조선족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특히 1950년대 말의 우파투쟁은 지방 민족주의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강한 민족의식을 특징으로 하는 조선족의 활동은 모든 측면에서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신중국 건설 이후 조선족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는 문화혁명 기간이었다. 봉건적 유물과 유습의 타파, 부르조아적 민족주의의 배격, 자산계급의 비생산적 지식의 배격과 무산계급 교육노선의 주장 등은 조선족 문화의 전면적인 파괴와 주로 지식인으로 구성된 민족지도자의 수난, 교육경시와 폭력적 파괴 풍조의 만연, 사회적 분열의 조장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시기는 현대 중국의 암흑기로 표현되지만 이 때 조선족의 수난은 어느 민족보다도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7년 10월 중국은 공식적으로 문화혁명을 청산하면서 좌파의 혁명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거꾸로 현대화(근대화) 정책을 마련하게 된다. 소위 4개 현대화와 개혁, 개방 정책의 추진은 중국사회에 전반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과거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의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소비경제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다. 농업에서의 개인 경영을 뜻하는 호도거리가 채택되면서 농업 생산성은 놀랄만큼 높아졌다. 기업간의 경쟁으로 공업생산성도 크게 올라갔고, 개체업의 허용으로 새로이 부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연변에서는 주택 사유제도의 채택과 함께 사유재산의 관념이 급속히 확산되어 가고 있다. 한마디로 문화혁명 기간에 온전히 움추러 들었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활동은 개혁, 개방과 함께 무질서에 가까운 폭발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느낌은 특히 조선족에게서 강하게 풍긴다.

## 2. 개인 생활사의 사례들

이상과 같이 중국 조선족이 경험한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조선족의 생활 세계를 몇몇 개인의 생활사에 관한 면담 내용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이를 통해 중국 사회의 총체적 변화가 조선족의 생활과 관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조선족의 생활 세계에 내면화되어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간접적으로 살필 수 있을 것이다.

(1) 성백이씨(가명), 나이 70세, 남자, 연길시 도심거주

일곱살 때 충청북도에서 이주하였다. 1927-28년경에 중국에 들어올 때 바다를 건너왔다.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노투구에서 이곳까지 걸어 온것으로 안다. 조부가 업고 배에서 내려 걸어왔다. 이웃의 몇 호가 같이 왔다. 당시 빛이 약간 있었는데 워낙 가난하고 지주의 압박이 심해 빛을 갚을 형편도 못되어 새벽 2시경 자다가 갑자기 도망을 쳤다고 한다. 그를 아버지가 보따리 위에다 올려놓고 가족이 함께 떠났다. 만주에 와서도 생활은 마찬가지로였다. 부친은 1931년 일본의 대국(중국) 침입을 보면서 "세상 까마귀는 다 까맣다"고 말하면서 일본 놈들을 원망하였다.

만주에 온 후 부친은 농업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출하 양곡을 거의 압수해 생활이 어려웠다. 일본의 압박과 착취가 심해 학교도 다니지 못했다. 소지주의 땅을 부쳤는데 환량(換糧)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식구가 많으나 부친 혼자서 노동을 하였다. 농사 전에 식량으로 한말을 꾸면 추수후 3말을 갚아야 했다. 주로 조와 옥수수 농사를 지었다. 5말을 꾸고 추수후 15말을 갚았는데, 지주들은 거기에도 양곡의 분량을 되는 데서도 남겨 먹었다. 꾸어줄 때에는 되를 박하게 하고 받을 때에는 매우 후하게 하였다. 온갖 착취를 다 하였다. 부친은 한쪽 소지주의 땅을 부쳤다. 처음에는 반작(50%)을 소작료로 지불하였다. 원래에는 땅을 개간하면 처음에는 거저이고, 3-4년이 지나 곡식이 나면 개간자 7에 땅주인 3의 비율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6대4를 적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1년중 7월에 개간을 시작해 겨울 눈을 지낸 후 이듬해 봄에 감자를 파종한다. 처음에는 콩, 옥수수가 잘 안된다. 처음 큰 곡식을 심고 나중에 잔 곡식으로 옮겨 간다. 그 당시(이주 초기) 벼농사는 별로 없었다. 벼농사의 역사가 이미 60년이 되었고 1920년대에도 벼농사가 있었지만, 그것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이다. 그 때 밭에다 심는 강벼를 약간 시작하였다.

중국에는 조부와 부모 그리고 남매 즉 5식구가 왔다. 그후 중국에서 3명의 동생을 더 낳았다. 조부는 본인이 10세 때에 84세로 사망하였다. 부친은 1970년도에 74세로, 모친은 1960년도에 사망하였다. 본인은 20세 때에 혼인을 하였다. 신부는 너울을 쓰고, 가슴에 꽃을 달고, 둘레 머리를 하였다. 기러기를 가지고 왔다. 신부와는 2살 차이였다. 본인은 당시 안도에 살았고 부인은 용정 등불사에 있었

다. 처사촌 언니의 중매로 혼인이 이루어졌다. 약혼사진을 찍고 같이 다니기도 하였다. 약혼에서 결혼까지는 1년도 걸리지 않았다. 신부집에서 혼인을 하고 당일로 신랑집에 왔다. 예물은 없었다. 혼인식날 저녁 잔치를 하고 친구들이 장난을 쳤다. 손님들은 술을 가져오고, 집에서는 감자국수, 돼지육수와 고추, 탁주를 대접했다.

당시 농촌 지역에서는 토비들이 설쳤다. 아이들이 토비에게 붙들려 가면 돈을 내야 풀려났다. 집에 돈도 없고 걱정이 되어 부친이 본인을 7세때 공장에 맡겼다. 주인은 존선인이었는데 농기구를 만드는 철공소에서 8년동안이나 일을 했다. 그런데 그만둘 때에 병들어 죽은 소3마리를 받은 것이 고작이었다. 그 다음에도 계속 남의 집 철공일을 하였다. 중국 공산당 덕분에 비로소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sup>13)</sup> 연변 농업기계창에서 오랜 동안 일한 후 이직하였다. 지금 정부에서 준 집에서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풍족하게 산다. 간부 봉급의 100%인 약 200유안(元)을 매달 받고 있다. 부친은 한어를 전혀 못했다. 본인도 잘 못한다. 그래도 불편하지 않았다. 늘 기계창(공장)에 한어를 잘하는 조선인이 있어 아무 문제가 없었다.

부인은 몸이 약해 일을 안한다. 같은 고향(충주)에서 온 사람이다. 21살때 첫애를 낳은 후 자녀를 모두 5명 낳았다. 그러나 처음 3명은 아이때 죽고 둘만 살아남았다. 아이들이 흥진으로 죽었다. 그 때 의사를 모시기에는 생활이 너무 어려워 가제(계)를 찌서 나온 물이나 돼지를 노랗게 태워 노란물을 받아 해열제로 썼다. 현재 살아있는 두 자녀는 모두 신중국이 탄생한 이후에 태어났다. 딸은 1949년에, 아들은 1955년에 낳았다. 딸 아들 모두 26세 때 결혼하였다. 딸은 결혼 후 당에 호소해 계속 농업 기계공장에 나가고 있다. 사위는 딸보다 2살 위로 군대에서 제대한 후 고수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통풍 기계공장으로 옮겼다. 조카가 소개해 처음 둘이 만나 자유결혼을 했다. 둘이 만나보고 쌍가가 협의하여 혼인을 결정하였다. 사위의 조선 근원이 어딘지 모른다. 아들은 연길 건축공사에서 전기가설 일을 한다. 며느리는 1살 아래로 사돈이 4백화에서 건축공사를 한다. 함경도 출신이다. 아들이 결혼 후 3년간 같이 살았다. 작년 11월 정부에서 집을 주어 개인집을

---

13) 이 말을 할 때에는 마음이 격해 눈물을 흘리며 울먹이었다.

갓게 되어 따로 살림을 나갔다. 같이 살때 봉급은 갓다 바치고 분배를 받았다. 딸도 결혼후 여러해 같이 살았다.

현재 외손녀와 손자가 하나씩 있다. 외손녀는 소학교 4학년이고 손자는 유치원에 다닌다. 부모가 생존할 때에는 조부모의 제사도 지냈지만 지금은 부모제사만 지낸다. 앞으로의 제사가 계속될 지 의문이다.

## (2) 김홍만(가명) 교수, 남60세

김교수는 함경도에서 이주한 농민의 아들로 연변의 가난한 조선족 농촌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14세 때 부친을 여의었다. 이후 살림은 전적으로 모친이 꾸려나가야 했다. 일제와 지주들의 극단적인 착취로 식구들은 도저히 살기가 어려워 어머니의 친정 마을로 이사를 했다. 거기서 외가 식구들의 도움으로 어려운 살림에도 학교에 다닐 수가 있었다. 소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돌아오면 여러가지 농사일과 나무를 하는 등 집안을 도왔다. 모친은 자식의 교육에 온갖 힘을 기우렸고, 공부를 남달리 잘한 본인에게 커다란 기대를 하셨다.

그러던 중 신중국의 성립과 함께 연변대학이 설립되었고, 그는 1949년 시험을 치러 정치학부에 입학하였다. 생활비 등은 아직도 어머니에게 의지하였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고 그것이 늘 마음의 부담으로 남아 있었다. 학교를 쉬고 어머니를 도우려 해도 꾸중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 그 때문에 오히려 더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하였다. 남들이 쉬는 사이에도 공부를 하고 말미가 나면 마을로 돌아가 어머니를 도왔다. 설틈은 조금도 없었다. 바꾸어 입을 옷도 없었고, 식사도 하숙집과 학교 이외에서는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성적은 늘 1등이었다. 그는 졸업 후 외국 유학을 추진하다가 그것 때문에 사상이 투철하지 못하다고 하여(공산당) 청년단에서 제명되었다. 그것은 정치학부의 학생으로서 가장 중요한 정치 생명을 잃는 것을 뜻하였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그의 인품과 실력을 고려해 그를 대학 교원으로 배치하였다. 그는 실력있는 교수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1958년 중국 정부가 단시일<14년안>에 영국의 공업화 수준을 따라 잡아 공산주의 최고봉에 오르기 위해 인민공사화를 추진하고 모든 국민을 강철 제련에



보내면서 김교수는 갖가지 시련을 겪게 된다. 그는 인민 공사가 역사 법칙에 어긋난다는 발언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우파분자'의 모자<sup>14)</sup>를 쓰게 되었다. 당시 그는 27세이었고, 노동개조<sup>15)</sup>를 위해 교단에서 쫓겨 농촌에 가게 되었다. 당시 그에게 미래를 약속한 처녀가 있었다. 그러나 그가 우파모자를 쓰게 되자 처녀의 집과 처녀가 속한 직장 단위에서 관계 단절의 압력을 넣었다. 노동개조를 떠나라는 통지를 받게된 그는 처녀에게 연락도 않고 농촌으로 떠났고 그후 처녀의 앞날을 위해 일부러 소식을 끊었다. 노동개조 명령은 칭천벽력과 같은 것이었다.

1960년 말경에 모자를 벗고 학교에 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우파의 따지가 붙어 교단에 설 수 없었고 생산대에 배치되었다. 나중 교장의 배려로 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책을 읽고 각국의 도서 사기 편찬에 몰두하였다. 그는 말수가 적어졌고, 몸도 매우 쇠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이 때 유치원에서 일하는 현재의 부인과 결혼하였다.

1966년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그에게는 또다시 시련이 시작되었다. 그가 정리한 자료는 모두 불속에 던져졌고 그는 다시 우파의 모자를 쓰고 투쟁무대에 세워졌다. 그는 1970년 1월 추운 겨울에 다시 농촌으로 노동개조를 떠났다. 이번에 그는 가족과 떨어져 한족 마을에 배치되었다. 노동을 마치고 시간이 있을 때에는 동의보감을 읽어 의학을 배웠다. 침도 놓게 되었다. 그 마을에는 의사가 없어 그는 의사 노릇을 하였다. 한족들은 그를 의사라고 불렀고 그는 환자들을 보살폈다. 그 때문에 그는 한족 마을에서 그들의 신뢰를 받으면서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갖은 고생에서 그는 몹시 쇠약해졌고 머리가 다 빠졌다. 그후 다시 머리가 나지 않아 아직도 가발을 쓰고 다닌다. 노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져 그는 중학교 교원으로 배치되었다. 문화혁명이 끝난 후 다시 심사를 거쳐 1977년에 모교로 돌아와 교수와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

---

14) 사람들 앞에서 비판이나 죄를 받을 때에는 모자를 씌우기 때문에 '모자'를 쓰거나 '감투'를 쓴다는 말은 정부나 당으로 부터 죄를 인정 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이 정치적인 이유로 억울하게 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말은 보통 누명을 쓰게 된다는 것을 뜻하게 되었다.

15) 노동을 통한 정신 개조를 뜻한다.

그는 현재 어머니와 부인 그리고 아들 내외와 살고 있다. 그리고 공산당원이다. 그러나 그는 자식에게 공산당원이 되라고 강요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 어떤 길이 나은 길인지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가 겪은 여러 어려움을 통해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같은 학교에서 함께 지내지만 많은 사람에게 대해 냉소하거나 적의를 갖고 있다. 그는 정치학을 그만두고 대신 이념적 논쟁에 말려들 염려가 적은 고대 철학을 전공으로 택했다.

### (3) 장씨, 남자, 50대 중반, 연길 이외의 도시 지역 거주

본인은 요녕성에서 태어났다. 부인은 본인보다 5살 아래로 현재 50대 초반이며, 4세때 조선에서 이주하였다. 양쪽 모두 충남출신이다. 현재 남조선의 친척을 찾을 수가 없다. 개체사업<개인사업>으로 여관과 반점<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

고중<고등학교>을 졸업한 후 1953년 9월에 공작<일>을 시작했다. 1956년에 개체사업으로 전기부품 공장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1959년 공사합병 정책에 따라 개체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공장을 정부에 넘기고 본인은 단위<sup>16)</sup>에 배치되었다. 그 후 광산의 자동차 정비로 일하다가 작년에 퇴직을 하였다. 원래에는 60에 퇴직하여야 하나 아프다고 하여 일찍 퇴직하였다. 부인도 같은 단위의 복무원으로 물자 취급을 담당하였다. 올해 현재 경영하고 있는 여관과 반점을 샀다.

건물과 음식점을 단위로 부터 15만유안에 사고 수리비 7만유안을 들었다. 즉 22만유안을 투자하였다. 이 자금은 1959년 전기부품 공장을 넘길때 모아둔 돈을 당시 은행에 몰래 예치한 것에서 나온 것이다. 원래 개인적으로 은행 최고 책임자에게 맡겼고 그 사실은 들만 알고 있었다. 은행하는 사람들은 신뢰성을 밀천으로 한다. 최근에 정치사정이 바뀌어 개체사업이 허용되고 사유재산이 용인되면서 다시 책임자를 찾아 갔더니 그 사이 이자가 붙어 금액이 배가 되어 있었다. 총 금액은 이것 3개정도 살 돈이다.<sup>17)</sup>

16) 국가나 지방 정부에서 경영하는 기업이나 각종 기관을 일컫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여기에는 공적 소유의 관념이 포함된다.

17) 여기에 소개된 얘기를 포함하여 이 사람의 얘기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크다.

1983년에 본인은 장암 진단을 받았다. 연길에서 진단을 받고 다시 길림에 갔다. 그 곳에서도 똑같은 진단이 나왔다. 광주에 가서도 암 진단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광주 지방의 한의가 용하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다. 그 사람은 8000유안을 한꺼번에 요구했다. 그리고 자기가 지어준 약을 먹고 3년 이내에 죽으면 전액을 반환하고 18년 이상 사는 것을 보장했다. 그 약을 먹고 아직까지 이상이 없다. 1983년의 암을 이유로 일찍 퇴직을 하였다.

현재 복무원 5명을 두고 본인과 부인이 여관과 음식점을 경영한다. 주방장은 월 300유안, 복무원은 100-120유안을 준다. 고급 주방장은 월 800유안을 주어야 한다. 이곳 복무원의 대우는 좋은 편이다. 다른 곳에서는 70-80유안을 준다. 이곳에서는 7, 8, 9월에 주로 장사를 한다. 이 때에는 한달 순수입이 2만유안을 넘는다. 어제<7월 말>하루 수입이 1200유안이었다. 요즘처럼 벌면 6개월에 본전을 찾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순수익이 80%가량 된다. 이 여관에 머무는 사람들은 여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해 이중으로 돈벌이가 된다. 주로 장사꾼이 많이 묵는다. 그래서 목재, 약초, 약 들을 증개해주고 사례금을 받기도 한다. 이들은 보통 한달씩 묵으면서 이 음식점에서 사람들을 초대해 식사를 하여 이중 삼중으로 돈벌이가 된다.

여관, 음식점 같은 개체사업을 하면 귀찮게 구는 기관이 많다. 그래서 일부러 돈이 없는척 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초라하게 입고 바보같이 행동한다.<sup>18)</sup> 그리고 가끔 돈을 주어야 한다. 잘 주어야지 안받으면 오히려 큰 일이다. 그래서 담당자의 아이가 다른 지역에 나가 공부하거나 부인이 아플 때 등, 때를 잘 보아 1000유안씩 쓰라고 주면 일년은 아무일 없다. 또 가끔 찾아오면 잘 먹인다.

총 공작기간이 30년이 되어 퇴직 당시의 봉급 100%를 매달 받는다. 1959년에 개체사업이 합병되기 전에 3년간 그것을 경영하였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해서 공작기간으로 계산하였다. 연금은 가끔 조정된다. 본인이 죽으면 부인이 50%, 16세 이하의 자녀는 25%를 받는다. 월 220유안 가량 받는다. 1983년까지는 퇴직이나 이직한 후 다른 일을 할 때에는 이 돈이 나오지 않았다. 또 같은 단위에서 일할 때에는 연금에다 약간 보태주었다. 그러나 이제는 연금은 물론 다주고, 공장을 계속

18) 실제 옷을 매우 초라하게 입고 있었으며, 행동도 매우 얼퍼 보였다.

할 때에는 공작금<봉급> 전액을 또 받을 수 있다. 즉 퇴직 후 똑같은 공작을 하면 원래 공작금의 두배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은 자신의 연금, 부인의 연금, 개체사업 부터의 수입, 중개수입 등 다양한 수입원을 가지고 있다. 세금은 개체사업에만 해당되며 그것도 매우 적다. 식당에서 버는 돈은 약 50%가 순수익이고, 여관에서 버는 돈은 80%가 순수익이다. 세금은 5%를 내야 되지만 영수증<수거표>을 떼가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장부상 여관 방은 비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자녀는 아들 둘 딸 하나로 모두 셋이다. 큰 아들과 딸은 결혼했고 작은 아들은 아직 미혼이다. 아들은 모두 집체<sup>19)</sup> 운전수이다. 사위는 뼈스운전수이다. 본인은 이를 자랑스럽게 얘기한다.<sup>20)</sup>

“지금 이 돈벌기희다. 지금 놓치면 안된다. 언제 정책이 또 변할지 모른다. 세상을 알아야 대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가끔 여기저기 다닌다. 그저 바보같이 없는 척 지내야 안전하다.”는 것이 이 사람의 현실 판단이다.

#### (4) 윤씨, 40대 후반의 여교사

윤씨는 Y중학교의 유아 사범반 재직 중이다. 원래 집안은 함경도 출신으로 어머니가 해방 전에 부르조아 출신이어서 윤교사는 많은 생활의 어려움을 겪은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아들과 딸 남매를 두고 있으며, 현재 조그마한 방에서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딸과 함께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남편은 과학자로서 상해의 광학원에서 근무하였다. 그러나 문화혁명 때 조선 특무<간첩>라는 누명을 쓰고 살해되었다. 직장이 국방관계 연구소이었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었다. 그 후 매우 어렵게 자녀를 키웠다. 가령 아들이 연길의 5중에 합격하였으나 연길에 거처할 곳이 없어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몇년전 상해의 광학원의 남편의 옛 동료들이 찾아와 아이 교육을 걱정하고 돌아간 후, 그들의 도움으로 아들이 길림광학

19) 지방 정부, 즉 성이나 시 또는 현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 또는 기관을 가리킨다. 중앙정부에 소속된 단위는 “전민”이라고 하여 집체와 구분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민과 집체를 합하여 통칭하기도 한다.

20) 연변에서는 운전수의 직업적 위세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남자의 직업으로서 운전수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

원을 졸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상해광학원으로 아들을 데려갔다. 현재 23세인 그는 그 곳에서 한족 처녀와 사귀고 있다. 딸은 Y중학교 유아사범과를 졸업하고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5) 권씨, 연길의 도시와 농촌 접경지에 거주하는 30대 중반의 남자

현재 권씨는 훈춘에 조그마한 석탄 광산을 하나 사서 이를 운영하고 있다. 원래 한족이 운영하던 것을 1년반 전에 현금 10만 유안을 주고 샀다. 현재 약 30명을 고용하고 석탄을 캐고 있다. 이들의 노임은 월 1200유안으로 매우 높다. 보통 공인의 1년 수입과 맞먹는다. 그러나 이들은 거의가 한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이유는 조선족은 광산일과 같이 힘들고 또 위험부담이 큰 일은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광산을 새로 하면 처음 일년은 시설비, 등록 관계 등 여러가지 일로 돈이 많이 들어 돈을 벌 수가 없다. 2년째 부터는 1년에 2만원이상 벌 수가 있다. 그러나 권씨는 몇년 하다 그만 둘 생각을 하고 있다. 그 까닭은 광산을 한다는 것이 매우 위험해 한번 사고가 나면 완전히 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3년 안에 본전을 뽑고 몇년 더하면 돈을 벌고, 그 다음엔 그만 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그는 단기간에 승부를 걸고 있다.

권씨는 길림성에 인접한 요녕성의 조선족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그 곳에서 살았다. 원래는 경상도 출신으로 현재 50대 중반인 어머니도 중국에서 출생하였다. 부친도 중국 태생인 이민2세이다. 외할아버지는 경상도 성주 출신이다. 한편 큰 아버지는 한국 태생으로 고향이 함천이다. 부친이 사망한 후 4년전에 연길로 이사를 왔다. 전에 살던 곳에 조선족이 얼마되지 않아 조선족 사이에서 살고 싶어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 현재 결혼한 누이 하나만 요녕에 살고 있고 어머니와 5남매 모두가 연변으로 이사를 하였다. 어머니의 호구는 아직 요녕에 있어, 그 곳에서 분배 받은 땅은 다른 사람이 경작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쌀을 보내주고 있다. 요녕에 있을 때에는 남조선 말씨<경상도 사투리>를 썼으나 이곳에 온 후로 연변 말씨<함경도 사투리>로 바뀌었다. 막내 여동생은 최근에 결혼하여 근처에 살고 있다. 막내 매부는 울해 화통진에서 연길로 호구를 옮겨 왔다. 그 곳에서는 입업국의 운전수로 일하였다. 그러나 호구를 옮기려면 먼저 직장을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는 사람이나 돈이 있어야 한다. 이 사람도 아는 사람이 해당 집체에 있어 직장을 옮기고 결과적으로 호구를 바꿀 수가 있었다. 권씨는 현재 부인과 딸 하나 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어머니가 아이를 하나 더 낳기를 바라지만 돈을 벌 때까지 생각 안하기로 하였다.

권씨는 요녕에 있을 때 트럭 운전수로 일하였다. 그러면서 부업으로 장사를 하였다. 여러 곳을 다니기 때문에 한 곳에서 값이 싼 물건을 떼어 그것을 다른 곳へ 가서 팔아 돈을 벌고 장사하는 요령을 배웠다. 개방 후에는 바로 개체호로 상업을 시작하였다. 얼마 전까지는 소규모 장사를 하였다. 주로 쌀을 요녕에서 사다가 비교적 쌀값이 비싼 연변에 가져다 팔았다. 양쪽을 왕래하면서 그때그때 여러가지 물건을 취급하였다. 가령 요녕에서 소고기를 3원에 사 연변에 가져와 5원에 팔았다. 연변의 가격이 높은 것은 연변 사람들이 잘 살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본인이 경영하는 광산 이외에 연길에서는 어머니와 부인이 조그마한 조선족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 음식점 수입도 한달에 1000유안 정도 된다. 음식점 수입을 올리기 위해 돌 불고기 판을 주문하여 석탄차로 연길 음식점으로 가져올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것은 현재 연길의 3곳에서 돌 불고기 판을 사용하여 장사가 아주 잘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남한에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거짓말이다. 권씨도 생산하는 곳을 알아 시간이 나면 직접 가서 구입해 올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것을 쓰면 일도 쉽고 수입도 많아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up>21)</sup>

### 3. 세대간 생활 경험의 차이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제1세대<sup>22)</sup>는 거의가 이직 및 퇴직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신중국 창립 초기에 공작을 시작하였다. 국가에서는 이들을 건국 유공자로서 취급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퇴직후 과거 공작비 <봉급>의 100%를 매달 지급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간부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국

21) 한국식 불고기 판은 암을 유발한다고 하여 연변에서는 못쓰게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22) 여기서 세대는 이주 시기와 관계없는 단순한 연령 집단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현재 60대 후반 또는 그보다 나이가 든 연령층을 의미한다.

가로부터는 물론 그들이 속했던 단위로 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다. 고급 의료 혜택은 물론 교통비 등을 매달 지급받고 있다. 현재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퇴직간부의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많은 단위는 이대로 5년 정도 지나면 단위가 파산할 지 모른다고 우려를 하고 있다. 실제 퇴직간부의 수입이 공원(직원)은 물론 간부보다도 훨씬 많게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는 현재 각 단위에서 문제로 서 제기되고 있다. 우선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가정적으로 많은 지출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는 일꾼들은 생활에 허덕이고 있는데 퇴직한 노인이나 간부들은편안한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은 젊은 일꾼이나 현재의 간부들에게는 흔히 잘못된 현상으로 이해되며, 이 때문에 퇴직노인이나 간부에 대해 혐오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중국 정부의 혁명세대 또는 사회주의 건설시대에 대한 특별 배려는 이들이 젊은 시절을 가장 고통속에서 보낸 세대라는 점에서 우선 합리화 된다. 이들 세대는 사회주의 정권에 가장 충성스러운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특별 고려는 다음 세대에게 퇴직이나 이직뒤의 생활에 대한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력 100%의 연금을 받는 집단의 하한 출생 년도의 조정을 통해 이전 세대가 받았던 이익이 뒷 세대에게 전수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는 노인 집단이 강력한 체제 옹호 세력으로서 남도록 하는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같은 맥락에서 노인 집단은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으로서 인식되기도 한다.

신중국 형성 이후 가장 격동적인 생활경험을 한 세대는 문화혁명 기간에 가장 핵심적인 생애를 보낸 사람들이다. 여기에서 두개의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두개의 세대가 포함된다. 하나는 문화혁명 당시에 기득권을 이미 확보한, 다시 말해 당시 사회의 중심 세력을 형성한 세대이었고, 다른 하나는 기존 중심 세력을 와해시키고 축출하는데 앞장선 당시 대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그리고 같은 연령층으로 구성된 청소년 세대이다. 하나는 피해를 받은 세대이고 다른 하나는 가해를 한 세대로 대별된다. 당시 사회적으로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지위가 부정됨은 물론 인민의 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많은 사람이 우파 모자를 쓰고 노동개조를 떠났고 이 때문에 그들은 가장 창의적인 시

기를 낭비하게 되었다. 그대로 직장을 유지한 사람들도 이데올로기적 억압에 눌려 자기자신의 일은 전혀 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나마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집에 모택동 주석의 사진을 걸어 놓고 식사 때는 집에서도 그 사진에다가 고맙다고 절을 하여야 했다고 회고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 경험을 통해 그들 사이에서는 절대 다른 사람을 믿지 않고, 남의 눈치를 보고, 자신의 지위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는, 그리고 절대 어떠한 일에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권력 지향적인 권위주의 생활 양식이 자리잡게 되었다. 개혁 개방과 함께 이들은 다시 사회의 주요 위치에 복귀하였다. 그러나 문화혁명 당시의 중추 사회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세대들은 그간의 공백으로 문화혁명 이후의 새로운 사회경제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한 이들은 이미 무사안일의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몸에 익혀 개혁의 추진 세력으로 등장하기보다는 흔히 절름들이 되는 것으로 인식이 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이 세대는 퇴직이나 이직에 가까운 연령 층을 구성하고 있다.

신중국이 낳은 또 하나의 비참한 세대는 바로 문화혁명 추진의 기반세력으로 이용되었던 당시의 청소년 층이다. 이들은 한마디로 이념의 희생물이었다. 문화혁명 기간에 젊은 세대는 공부나 기술 훈련을 등한시 한채 이념 투쟁에만 전념했기 때문에 문화혁명 이후에 이들은 실력이 없어 아무런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가 없었다. 당시 지식은 공허한 반혁명적 사치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고 노동만이 가장 높은 혁명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생각되어 젊은이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농촌으로 가 농사를 짓거나 공장의 노동자가 되기를 서슴치 않았다. 대학도 처음에는 문을 닫았고, 문을 다시 연 다음에도 지식 습득의 장으로서보다는 혁명교육의 장소로 탈바꿈하였다. 현재 40대에 속하는 이들은 개혁 개방 이후에 필요한 각종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이념 때문에 포기하였다. 따라서 개혁 참여에 있어 이들의 역할은 매우 한정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전 세대에 속하는 지식인이나 간부들에게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람들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 현재 중국 사회에 중추적인 세력이 되어야 할 40대가 각 분야에 있어 실력이 없을 뿐 아니라 이전 세대와의 갈등으로 인해 별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현상은 연변 조선족에게도 마찬가지다. 가령 현재 연변대



학에서 알고 있는 간부의 세대교체는 주로 50-60대와 4대초반내지 30후반 사이에 나타나고 있다. 약 10년간의 공백이 관찰된다.

현재 30대에 속하는 집단, 즉 문화혁명 이후에 학교교육을 받은 세대는 이 보다는 기술과 과학을 중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또한 보다 넓은 선택속에서 자랐다.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을 갖기 시작했으며 개체사업을 선호하는 경향도 보인다. 이들에게서는 명분이나 지위보다는 실리 또는 경제적 이익을 따르는 경향도 발견된다. 새로운 교육을 받은 세 세대는 바로 위의 문화혁명 세대보다는 문화혁명 이전 세대와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체로 진로의 문제에 있어 많은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본인만 똑똑하면 각종 단위에서의 출세가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과거 체제에 있어서의 지위는 현재 젊은이들에게는 별 매력이 없다. 오히려 개체사업을 통해서, 또는 외국 기업체나 좋은 기업단위에 들어가 돈을 벌기를 원하는 성향이 상당히 널리 관찰된다. 그것은 새로이 성장하는 부문의 봉급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대학에서 연구생<석사> 과정을 마친 다음 교수가 되기를 누구나 바랐지만, 지금은 연구생 과정의 학생이나 이를 마친 사람들 가운데 대학에 남기를 원하는 사람이 몇 안된다. 많은 수가 개체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개체사업에 실패하면 다시 연구생 과정에 들어 오기도 한다. 한마디로 대학에서 교수가 제자를 기르고 연구원을 확보하기가 매우 힘든 형편이다.

이들 세대는 생활에 있어서도 다른 세대보다 개방적이고 사치하다. 이들은 개방 이후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각종 써비스업에 종사할 뿐 아니라 이들 써비스의 주 이용자이기도 하다. 이들은 머리, 몸매, 화장, 옷에 매우 신경을 쓰고 남자의 경우 값싼 백주<고량주>보다는 값비싼 피주<맥주>를 주로 마신다. 담배도 중국산보다 5-10배 비싼 외국 담배를 피우기를 즐기는 사람이 청년층에 많다. 음식점에서 비싼 음식을 시키기를 좋아한다. 나이든 세대는 흔히 "집에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대로 다 써버리는" 한심한 것이 요즈음 청년들이라고 눈살을 찌푸린다. 이러한 성향은 한족보다는 조선족에게서 뚜렷하다는 것이 조선족의 자체 평가이기도 하다.

## IV. 공동체 생활의 특성과 변동

### 1. 조선족의 집거현상

중국의 조선족은 대부분이 집단으로 마을을 이루거나 특정 지역에 모여 산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조선족이 조선족 마을에서 생활한다. 연길과 같은 조선족의 거주 지역은 확연히 구분된다. 이러한 현상은 연변을 비롯한 중국의 조선족이 거의 황무지를 개척하여 정착하였다는 점, 연변과 같은 곳은 조선족 이입의 역사가 바로 지역 발전의 역사이었다는 점, 연길이나 도문과 같은 도시는 조선족의 중심지로서 성장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선족의 집거현상은 그것이 바로 조선족으로 하여금 동질성을 유지시키고 민족의식을 잃지않게 하여 온 기본 요소인 동시에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농촌의 경우 조선족 마을은 외관상으로 한족 마을과 구분된다. 우선 조선족 초가집은 짚으로 이엉을 엮어 지붕을 이었다. 지붕의 형태가 일자형 홑집이기 때문에, 그 모양은 앞면과 뒷면이 긴 사다리꼴의 두면을 이루며 양 옆면은 비스듬한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4개의 면으로 되어 있다. 또한 지붕은 전체적으로 소복한 느낌을 주며 곡선감을 느끼게 한다. 조선족 초가집에는 거의 예외없이 벽에 하얀 회칠이 되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족 초가집은 짚을 그대로 줄에 매어 늘어뜨린 형태를 하고 있으며, 지붕 좌우의 양면은 짚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흙벽 또는 판자로 된 똑바로 세워진 삼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고, 앞면과 뒷면도 긴 직사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족의 초가집은 맞배 지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좁고 긴 앞뒤의 두개의 직사각형이 맞닿은 모서리에 추녀가 없고 용마루까지 좌우 측면의 마구리가 “人”자 형으로 되어 있다. 또한 벽도 회칠을 하지 않은 흙벽 그대로이다. 이러한 특성의 차이때문에 멀리서도 조선족 마을과 한족 마을은 쉽게 구분된다.

최근에 농촌 가옥이 기와와 벽돌로 많이 바뀌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조선족 양식과 한족 양식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관찰된다. 조선족 기와 집의 지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선이 약간 곡선을 이루고 있으며 지붕의 옆면도 비스듬이 기와

를 올리고 있다. 앞에서 보면 조선 기와집은 사다리 꼴인데 반해 한족의 것은 직사각형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에 짓는 조선족의 기와집 가운데에는 건축의 간편성 때문에 한족식으로 지어진 것들이 많이 눈에 뜨인다.

조선족 마을은 근처의 전답과 인공환경 및 경관으로도 한족 마을과 분간할 수 있다. 조선족은 거의 대부분이 벼농사를 짓는다. 또한 조선족은 담배농사를 많이 짓는다. 즉 논(水田)이 있고 연초 건조장이 있는 곳은 거의가 조선족 마을이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조선족 마을의 입구나 근처에는 “혁명열사 기념비”가 서 있다. 한족 마을에서 이러한 기념비를 찾기란 쉽지 않다. 그것은 만주 지역에서 항일 투쟁과 뒤에 사회주의 혁명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주로 조선족이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도시에서는 조선족 집거 지역과 한족 집거 지역이 농촌에서와 같이 명백히 구분되지는 않는다. 최근에 들어 도시에서는 인구성장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주택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도시에서는 주택의 선택이 지역의 선택에 우선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연길의 경우 전통적으로 조선족 집거 지역과 한족 집거 지역은 동서로 나뉘어져 있다. 중심부 시장 지역의 서쪽에는 조선족이 주로 거주하고 동쪽에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한다. 중심부의 “서시장”이 주로 조선족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서시장을 기점으로 서쪽으로 조선족 주거지가 발전하였다. 주택난 때문에 최근에 형성 발전된 지역의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혼합 거주 형태가 발견된다. 그러나 지역을 더 세분하면 거기서도 다시 조선족과 한족 거주가 나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거주 지역의 분리는 민족적 동질성에 기초한 생활 감정과 생활 세계의 차이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 형성된 도시 거주 지역의 경우 한족 거주 지역과 조선족 거주지역의 외관상 차이를 찾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형성된 한족 거주 지역과 조선족 거주 지역 사이에는 외관상의 구분이 가능하다. 우선 한족 거주 지역은 느낌이 어둡고 흔히 문이나 벽에 얽은 푸른색 칠을 해 전체적으로 청색조의 분위기를 준다. 그리고 조선족 거주지에 비해 활기가 덜하고 느릿느릿한 느낌을 준다. 반대로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비교적 색조가 밝고 복잡하고 어지러운 인상을 준다.

〈표17〉 연길시의 행정구역별 조선족과 한족의 분포(1987)

구역	조선족인구 (a)	한족인구 (b)	한족의비 (b/a×100)
연길시	141,974	94,668	66.7
도시지역	108,297	75,871	70.1
조양가	6,700	18,884	281.9
진학가	9,547	10,949	114.7
북산가	12,943	7,250	56.0
광명가	9,581	3,865	39.2
신흥가	14,382	2,770	19.3
공원가	8,620	3,407	39.5
연서가	11,806	8,570	72.6
하남가	16,993	13,087	77.0
진공가	17,455	7,089	40.6
농촌지역	33,267	16,406	49.3
장백향	12,198	4,377	35.9
소영향	5,057	3,433	67.9
홍안향	10,618	3,866	36.4
연집향	5,394	4,730	87.7
광구지역	410	2,391	583.2

자료 : 「연길조선족자치주 통계연감」, 1987.

다. 물론 연길에서는 간판에서도 주민의 민족적 배경을 쉽게 판별할 수 있다. 가령 모든 간판에는 조선어와 한어를 같이 쓰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족 지역에서는 한어로만 쓰여져 있는 간판이 많다. 참고로 연길시의 행정구역별 조선족과 한족의 비율을 살펴보면 〈표17〉과 같다.

## 2. 농촌 조선족 마을의 사회적 특성

연변 지역의 농촌 조선족 마을은 크게 보아 두가지 기원을 가진다. 그 첫째는 이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모여들어 형성된 것으로 연변 조선족 마을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는 주로 1930년대 후반에 조선으로부터의 집단 이동에 의해 형성된 마을들이다. 그러나 연변지역에는 이러한 마을이 별로 많지 않다. 이 두번째 형태의 마을들은 주로 흑룡강성과 요녕성 및 연변 이외의 길림성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집단 이주에 의해 형성된 마을들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조선의 고향 또는 기원지가 같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마을은 보통 조선의 기원지의 이름을 따 “전라도 마을”, “강원도 마을” 등으로 불리어진다. 현재 연변에서는 주로 외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안도나 돈화, 왕청에 이와 같은 마을들이 아직 남아 있다.

초기 조선족 이민들의 마을 형성의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된 것이 없다. 이원길의 ‘설야’(1989)와 같은 소설에 따르면 우선 마실 수 있는 물을 찾는 것이 이주민의 정착의 제일 요건이다. 다음 농사에 성공하여 식량의 자급자족이 이루어지면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마을이 형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마을의 운명은 뒤에 등장하는 만족 지주나 일제의 착취 앞에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있었다. 개별적으로 조선인들은 으레 조선족 마을을 찾아갔다.

연변의 어떤 학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한 얘기에 따르면, 조선족 마을은 초기 정착기에는 주로 산 중턱에 있었으나 점차로 논을 개간하면서 산 아래의 평지로 이동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양상은 아마도 연변 지역의 벼농사의 발전의 역사와 매우 긴밀히 관계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주민들이 주로 함경북도 산악지대 출신이 많았으리라는 점과 그들이 조선에서도 대체로 한전 내지 화전 농업 종사자이었으리라는 점도 조선 이주민들이 초기에 산 중턱에 정착하게 한 요인이었을 수도 있다. 연변 지역에 벼농사가 처음 도입된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실제 벼농사가 조선족 사이에 보편화된 것은 1930년 경부터, 특히 남한의 답작 지역으로부터 집단 이민이 시작되면서부터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현재 연변 지역의 조선족 마을의 역사는 몇개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오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sup>23)</sup>

우리 연구팀이 연변 조선족의 생활을 연구하기 위해 선택한 29개 농촌마을 가운데 마을성립 기간이 기록된 25개 마을의 형성기간 분포를 보면 다음의 <표18>과 같다.

<표18> 29개 표본 연변 조선족 마을의 형성시기

마을형성시기	마을 수	마을형성시기	마을 수
1890년 이전	3	1881~90	2
1891~1900	1	1901~10	2
1911~20	3	1921~30	4
1931~40	4	1941~50	4
1950년 이후	2		

이 자료에 의하면 100년 이상된 마을은 5개, 즉 20%에 불과하다. 반면 1930년대와 그 이후에 형성된 마을은 10개 또는 40%에 달한다. 물론 이 자료가 연변 조선족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것도 신뢰성을 보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통해 우리는 연변 조선족 농촌 마을들이 대체로 그리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비교적 오래된 마을들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과 마주하고 있는 도문과 훈춘, 그리고 초기 조선족 집거 지역으로 알려진 용정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1930년 이후에 형성된 마을들은 안도, 돈화, 화룡 등의 산간 벽지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위의 마을 가운데 형성 당시 마을의 호구를 보고한 20개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된 때의 조선호 호구 분포를 보면, 10호 이하가 7마을, 11-20호가 4마을로 20호 이하가 50%를 넘고 있다. 50호 이상이 되었던 곳은 5마을에 불과하다. 특히 초기에 형성된 마을일 수록 그 규모가 작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조선족 마을의 조선족 호수는 50%인 14개 마을이 101호에서 200호 사이에 분포되어

23) 한족 마을의 역사는 이미 제1장과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족 마을에 비해 훨씬 더 짧은 것으로 보아 틀림이 없을 것이다.

〈표19〉 연길시의 표본 조사 지역의 조선족 직업분포 (%)

	농업	공원	전문	행정	상업	직원	(총수)
도시지역							
광명가 화신거	-	35.6	11.0	8.9	16.0	28.5	(281)
신흥가 14거	-	40.7	17.3	20.1	10.6	11.2	(403)
진학가 풍부거	-	45.5	8.6	20.9	6.8	18.2	(220)
연서가 원결거	6.2	44.1	14.1	16.9	2.8	15.8	(354)
진공가 연화거	2.3	53.4	6.4	13.8	5.4	18.6	(311)
농촌지역							
홍안향 북대촌	41.8	25.0	4.9	1.2	20.5	6.6	(2862)
장백향 신평촌	60.1	32.6	0.6	0.3	3.6	2.8	(2029)
의란향 구룡촌	71.7	-	4.0	8.1	4.0	12.1	( 990)

자료 : 1990년 연변 조선족 조사 중 거촌 조사자료.

있다. 그리고 6개 마을은 51호에서 100호 사이에 놓여 있고, 8개 마을이 201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구가 많은 마을은 주로 연길시 안에 있거나 연길시에 인접한 곳에 있다. 이들 마을에는 연길시가 팽창함에 따라 많은 수의 호구가 유입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연변 안의 농촌 마을들은 대부분이 높은 비농 인구 비율을 보인다. 〈표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농 인구 비율이 50% 이상되는 농촌도 있다. 우리의 조사에 따르면 전형적인 농촌 마을의 경우 농가 인구 비율은 95%를 넘는다. 따라서 높은 비농 인구 비율을 보이는 마을은 대개가 도시의 근교 지역으로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곳으로 볼 수 있다. 가령 연길시의 경우 도시 지역에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곳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가 집세 싼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 중에는 혼인으로 새로운 주거가 필요하지만 주택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도시 지역의 주택 부족이, 도시 지역의 팽창과 함께, 인근 농촌 지역의 성격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도시에 인접한 농촌에서의 비농 인구 증가의 또 다른 이유의 하나는 농가 내의 잉여 노동력의 비농 활동을 인정하는 개혁·개방이

후 중국 농업 정책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주위에 비농 취업 기회가 비교적 많은 도시 인근 농촌에 대해 큰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연변 조선족 마을 가운데 상당수가 조선의 지역적 연고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미 제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30년대 이후에 발생한 조선족 마을들의 대다수가 일본의 중국 침략정책의 일환으로 남한 지역으로부터의 집단 이주를 그 기원으로 하고 있다. 이들 마을 가운데 아직도 그 지역적 기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도 상당수에 달한다. 최근에 이르러 이러한 기원지의 지역적 패쇄성이 급격히 무너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도 경상도 마을 또는 전라도 마을로 불리우는 곳이 여럿 있다. 또한 그 수는 적지만 충청도 마을이나 강원도 마을도 있다. 연길시의 농촌 마을인 신평촌도 현대 경상도 출신이다수는 아니더라도 주민 다수가 이 마을을 경상도 마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주로 함경도 이민에 의해 형성된 마을 가운데에는, 특히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함경도 내의 특정 지역 출신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정 지역 출신으로 형성된 마을의 정체성(正體性)의 약화나 상실은 주로 이질적인 요소의 유입에 의해 촉진된다. 연변 지역의 비함경도(남한지역) 출신 마을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러한 지역적 패쇄성의 해체는 함경도 출신 인구의 유입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조선의 부거제(父居制)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았고 실제 지켜지기도 어려웠던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는 결혼에 의한 주민 출신 지역의 이질화는 쉽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차적인 조치는 혼인의 통제이었다. 아직까지 그 출신 지역의 정체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경상도 마을이나 전라도 마을들은 자녀들의 배우자 선택에 있어 상당한 간여를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령 안도의 경상도 마을로 알려진 새마을(新屯村)에서는 이 때문에 마을혼(村內婚)이 일반화 되었다고 한다. 또한 경상도 마을은 경상도 마을끼리 그리고 전라도 마을은 전라도 마을끼리 통혼권을 이루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한적인 통혼 마을을 "사돈마을"이라고 부른다. 그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안도현 삼도향의 인근 전라도 마을인 '복도마을'과 '남도마을'이다.

마을의 이질화의 이차적인 요소는 한족의 유입이다. 조선족은 한족의 마을 내



유입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주로 한족은 일단 들어오면 나가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는 점, 일단 정착을 하면 다른 한족을 불러 들인다는 점, 그 결과 마을의 성격이 바뀌거나 조선족이 아예 밀려나게 되기도 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한족에 대한 인식은 중국 조선족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따라서 조선족 마을의 정체를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한족의 유입을 막거나 제한하는 것이 일차 과제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을의 정체 의식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위에서 언급한 안도의 경상도 마을이다. 이 새마을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안도의 새마을은 원래 일제의 집단 이주 정책에 따라 합천과 거창에서 1937년과 1938년에 이주해온 사람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처음에 이들은 현재 마을에서 20리 가량 떨어진 산골인 도안구(島安溝)에 102호가 도착하였다. 한편 이웃의 얼청바이(二靑背)에도 같은 지역에서 100-150호로 이루어진 이민단이 두번 도착하였다. 도안구에 도착한 120호중 이곳이 마음에 안들어 이듬해부터 3년안에 돌아간 호수는 약 3분의 1 가량이 되었다. 현재 이 마을에는 초기 이주 때와 비슷한 74호가 살고 있다. 그중 50호가 처음 이주자들의 호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얼청의 같은 경상도 마을에서 온 호구가 5-6호 된다. 나머지는 나중에 들어온 함경도 출신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부분이 혼인에 의해 유입되었다. 20년 전인 1970년까지만 해도 혼인은 주로 마을혼이었다. 중매는 주로 얼청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한족 호구는 하나도 없다. 1989년 겨울 한족 2호가 들어와 빈 집에서 거주를 시작하였다. 이들을 바로 내어보내려 했으나 추운 날씨에 갈데가 없다고 사정해 겨울을 지내도록 허락하였다. 봄이 되자 바로 나가도록 하였다. 그것은 이들이 일단 이곳 호구를 열게 되면 전세가 생겨 한족의 침투를 막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이 마을 사람들이 다른 마을로 호구를 옮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또 다른 곳 사람이 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아직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sup>24)</sup> 이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들끼리는 경상도 말을 쓰고 외지 조선족과는 함경도 말을 쓴다. 옛날의 경상도 음식으로 지금까지 전하여 내려오

24) 전입과 전출의 제한은 호구의 전입시 해당 마을이나 단위의 허락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던 중국의 호구제도에 의해 가능하다.

는 것으로는 콩잎자반과 깻잎자반 등의 밀반찬이 있다. 그리고 과거의 공동체 특성인 농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쟁매기(2개), 징(1개), 장고(2개), 북(4개), 소고, 탈버꾸(6개), 상모(20개), 복색(20벌) 등의 악기와 도구를 보전하고 있다.

연변 또는 중국 조선족의 농촌 마을은 몇가지 점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와 차이를 보인다. 우선 동족 또는 동성 마을이 거의 없다. 동족의식이 별로 없고 친족관계나 공동체 의식도 약하다. 또한 양반촌과 상민촌 등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마을 구분도 없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조선족 마을이 조선으로부터 가난한 농민들이 이주하여 형성된 마을이라는 특성에 의해 대부분 설명된다. 일제 후기의 집단 이주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단독 가족 이주자들은 처음부터 친족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었고, 극도로 나쁜 생활조건 때문에 가족과 형제들조차도 서로 헤어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또한 이민 후의 극도의 가난과 낮은 사회적 지위는 조선족 농민들의 잦은 거주지 이동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부모와 혼인한 자식들이 같은 마을에 살게 된 것은 농촌 생활이 안정된 이후 그리고 거주지 이동이 극도로 제한을 받게 된 신중국 창설 이후인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친족의 조직은 봉건사회의 유물로서 금기시하는 사회주의의 이념 때문에 형성되지도 발달하지도 못하였다.

### 3. 농촌 공동체의 변동

중국에 있어서 농촌 공동체의 성격은 국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였다. 조선족 공동체도 예외가 아니다. 좌파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1950년대 말부터 문화혁명 기간의 10년동안 중국 농촌은 철저한 인민공사 체제로 바뀌었다. 개별 마을은 보통 하나의 대대로 편성되었고 그것이 생산단위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대는 다시 전체적인 생산의 분업조를 의미하는 여러개의 소대(또는 소조)로 나뉘어 졌다. 가령 농업조, 남새(채소)조, 기업조 등의 분업 구조가 그것이다. 모든 생산과 분배는 단위(개체 인민공사 또는 대대)에서 관장하였고, 개인적 소비를 위한 농사나 활동은 일체 금지되었다. 집 주위의 터밭에서의 가족

소비용 채소재배나 부업, 겸업 활동 등은 모두 금지되었다. 이 당시에는 또한 전통적으로 조선족 공동체의 주요 생활양식과 의식을 대표하는 각종 마을 협동 조직이나 상징도 봉건적 잔재 또는 지방 민족주의적 유물로 간주되어 모두 폐기되었다. 그 결과 상여나 족보, 계 등도 모두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좌파 오류의 인정과 새로운 정책의 채택은 도시 뿐 아니라 농촌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농업에 있어 개인 경영을 뜻하는 '호도거리'제도가 채택되고 한가지 품목에만 전념하는 전업호와 농업 이외의 다른 경제활동에의 참여를 뜻하는 겸업호가 장려되면서 과거의 인민공사 체제는 완전히 와해되었다. 또한 농업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기계화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단기간에 트랙토르(트럭터), 이앙기 등이 광범하게 보급되었다. 그 결과 농가의 수입은 크게 늘어났다. 최근 농촌에 대한 기사나 논문은 거의 예외없이 이러한 여러가지,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개인적인 이윤 추구의 동기를 자극하기 위한 호도거리가 농촌 경제 발전에 얼마나 공헌하였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과 농업 현대화 정책은 농촌 공동체에 여러가지 새로운 긴장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리고 모든 개인이 경제적으로 풍요해진 것도 아니다.

안도의 새마을의 경우 마을의 지도자들은 호도거리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이 마을은 과거 단결이 잘 되어 이미 높은 농업 생산성을 이룩하였고 마을 공동의 농기구<sup>25)</sup>도 여러가지 구비하였다. 그리고 생산된 양곡을 보관할 수 있는 커다란 창고도 마련하였고 훌륭한 마을 회관도 지었다. 따라서 이 마을에서는 호도거리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과거의 집단 농업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거의 강제적인 권고에 따라 하는 수 없이 1983년에 호도거리를 채택하였다. 그 이후 이 마을의 협동체제는 빠르게 무너졌다. 모든 농기구는 개인에게 분할되었고, 그 결과 비싼 농기구가 마을 전체를 위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필요한 농가는 각자가 농기구를 구입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개인의 농사와 경제활동에 바빠 논둑을 고친다든가 물을 관리한다든가 마을 회관이나 창고를 수리하는 등 마을 전체의 이해가 개재된 일에는 사람들이

25) 마을 공유재산으로 정미간, 담배건조장, 철공소와 이앙기, 75형 도라지(불도저), 손잡이 프라가토르(트럭터) 등이 있었다.

무관심하게 되었다. 생산을 지원하는 마을 전체의 기반은 오히려 약화되어 이것이 거꾸로 개별 농사와 경제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호도거리는 그 경제적인 성과는 매우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공동체의 안정성과 의식에는 커다란 타격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농업 기계화의 촉진은 농촌에 과잉 노동력 현상을 초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농촌 과잉 노동력은 노동력의 도시로의 전출과 농촌 경제활동의 다양화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호구제도를 이용해 과잉 노동력의 도시로의 이출을 상당히 억제하고 있다. 물론 과거와는 달리 농촌 사람들도 도시(특히 鎮과 같은 小城市)에서 임시 호구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고 있다(염지강 외, 1989: 120-122). 그러나 중국 정부의 농촌 과잉 노동력에 관한 정책은 주로 농촌 내에서의 다양한 경제활동의 기회의 제공에 비중을 두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농가의 비농 직업의 겸업(가령 운전수나 공원)장려, 인근 도시에서의 채소나 농산물 노점상 판매의 허용 등이 여기에 속한다(위의 책 참조). 이러한 정책은 도시에 인접한 농촌에 특히 효과가 있다.

현재 연변 조선족 마을의 젊은이들은 이미 강한 이농향도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조선족 마을이 한족에 의해 침투되고 있는 이유의 하나를 조선족들은 이러한 젊은이들의 이농향도에서 찾고 있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도시의 발전은 농촌 젊은이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시골 뻘에서 만난 젊은 조선족 농촌 부인이 말한 "사람이 문화생활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성시로 가야지요"라는 짤막한 얘기는 조선족 젊은이들이 이농향도의 잠재력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 조선족의 도시 지향성은 "조선족은 시골 학교에 배치를 받으면 가지 않거나, 마지 못해 가도 곧 성시로 나오려고 하지 그곳에서 평생 살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거나 "농촌 처녀들이 성시 총각에게 시집을 가려해 농촌 총각들은 장가가기도 힘들다"는 말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러한 얘기들은 한족 청년들과의 비교를 전제로 한다는 데에서 특히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요즈음 한족 청년들 사이에서도 광범한 이촌 현상이 발견되지만, 그 욕구의 강도는 조선족보다 훨씬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변 농촌 공동체의 성격 변화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도시 지역의 발전과 성

장이다. 도시 지역 고용 기회의 확대는 불가피하게 인근 농촌의 교외 도시화와 비농 인구 비율을 높인다. 또한 인근 농촌의 도시의 소비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도시의 성장과 발전으로 인한 농촌 변화는 특히 연길 주변 농촌에서 뚜렷하다. 가령 우리 조사 지역 가운데 북대촌, 신평촌, 민주촌 등 연길시에 속하는 농촌에는 도시의 건축 붐과 관련해 벽돌공장이 들어서 그곳 주민 노동력을 이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다른 공장들이 부분적으로 들어서고 있다. 주민들의 직업구성도 매우 다양해진다. 위의 세 농촌 마을의 경우 비농 인구의 비율은 약 30%에서 60%에 이른다(표19 참조). 물론 이러한 높은 비농 인구의 비율은 일차적으로는 이들 지역이 교외 지역화하면서 많은 비농 인구가 유입하는데 기인한다. 또한 공장과 같은 도시 산업의 유입도 비농 인구의 유입과 기존 농업 인구의 비농 인구화를 촉진시킨다. 한편 도시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의 많은 기업체가 농촌의 땅을 매입하여 그 기업체의 종업원을 위한 주택을 주변 농촌에 짓기도 한다. 이때 해당 마을과 해당 단위 사이에는 협상이 이루어 지는데 그 대표적인 해결책이 마을에서 주택 또는 공장을 지을 땅을 제공하고 대신 해당 단위는 과거 그 땅에 투입되었던 농업 노동력에 해당하는 인력을 그 단위의 공원 또는 복무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공원이 된 사람은 그 마을에 그대로 살더라도 성시 호구를 갖게 된다. 누가 공원이 될 것인가는 주로 마을에서 결정하며 보통 젊은 남자들이 뽑힌다. 결혼을 했을 경우도 널리 관찰된다. 한편 도시의 발전과 함께 인근 농촌에서는 농업의 성격도 크게 바뀐다. 곡물 농사보다는 환금성이 높은 비닐방막(비닐하우스)을 이용한 채소 농사가 도시 주변 농촌에서는 보편화되고 있다. 비닐하우스 농사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젊은 층이 많으며 이들은 흔히 기업농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 즉 비농 인구의 증가, 비농 산업의 등장, 농업 종사자의 공장 노동자화, 새로운 농업의 등장 등은 농촌에 있어서의 역할구조를 변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주로 전통적인 농업은 여성이나 노인들이 담당하고 남자들은 공인이나 상인이 되거나 새로운 농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심지어는 특별한 돈벌이가 없고 농촌 호구를 가져 땅을 배분받고 있는 남자 가장이 농사는 부인에게 맡겨둔채 별일없이 지내는 경우도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은 이들 마을에서는

일반 농업 종사자의 사회적 지위가 도시화의 영향으로 매우 낮게 평가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전형적인 농촌지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도시 주변의 매우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농촌의 사례로 연길시 소영향 민주촌 봉소평의 경우를 살펴보자.

민주촌은 원래 수전 농업을 주로 한 매우 가난한 농촌이었다. 그러나 약 10년전 채소재배가 시작되면서 잘 살게 되었다. 현재에는 비닐하우스가 여기저기 눈에 뜨인다. 원래 이 마을은 70년 전에 조선족에 의해 세워졌다. 오늘날 이 마을에는 조선족과 한족의 거주 지역이 분리되어 있다. 현재 이곳에는 대부분이 3-4대째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약 120호가 살고 있다. 이곳은 도시 근처라 이미 오래 전에 땅이 다 개발되어 농토의 확장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거기에다 이 지역에는 각종 공장이 들어서면서 그리고 다른 농촌과 도시로부터 인구가 유입되면서 인구는 많아지고 농지는 좁아져 농가 인구 일인당 분배되는 토지는 매우 협소하게 되었다. 현재 농촌 호구를 가진 인구 일인당 분배되는 토지는 수전과 한전 채소밭을 모두 합하여 2무(畝)-약400평-에 불과하다. 아직도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이 지역에는 이미 공장이 많이 들어서 있다. 그리고 도시쪽에서 들어오는 마을 입구에는 음식점, 상점, 이발-파마점 등이 많이 들어서 있다. 과거에는 모두가 초가집이었으나 이제는 대부분이 벽돌집이고 초가집에서 사는 사람들도 벽돌집을 짓고 있거나 곧 지을 계획으로 있다.

이 마을에 사는 60여세 되는 노인 여자는 자녀가 일곱이지만 현재 미혼인 막내 딸과 함께 살고 있다. 부인이 채소밭 일을 하는데 시집간 딸, 그 딸의 미혼 시누이와 동서(시동생의 부인)가 함께 도와주고 있다. 사위는 도시에서 공장에 다녔으나 단위에서 나가 개체사업(오토바이 수리)을 하다가 현재 서울갈 준비를 하느라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한편 30대 초반의 이씨는 부인 및 5살짜리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원래 이곳 출신으로 현재 호구는 성시에 있다. 이곳에 길림성의 공장이 집을 지으려고 땅을 살 때 땅을 제공하는 댓가로 공원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10년전 공장이 있는 성시로 호구를 옮겼다. 현재에는 이곳 목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부인은 농촌 호구를 거쳐 농사를 짓고 있다. 집을 약 2년전에 지었다. 집터는 마을의 촌민위원회에서

주었다. 집은 92평방미터로 짓는데 약 1만유안이 들었다. 방은 3개로 하나는 크고 들은 작다. 큰 방은 주인이 쓰고 작은 방 두개는 결혼하여 아직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세를 주고 있다. 남편의 노임은 월 100유안 정도이며 부인이 두 식구 분(아들것 포함) 농사로 얻는 년 수입이 약 2000유안이 된다. 그의 집세로 방하나에 30원씩 매달 들어온다.

30대 김씨의 가족은 부인과 자식을 합해 모두 3식구이다. 따라서 3식구 분으로 총 7무의 채소 밭을 분배 받았다. 그는 옆의 땅을 분배받은 형과 함께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다. 시설비로 1만유안을 들여 한해 수입으로 15,000유안을 올렸다. 수입은 좋지만 일이 매우 많다. 주로 오이, 도마도, 김장배추, 상차이(미나리 종류), 친차이(썰러리) 등 수익성이 높은 작물을 재배한다. 겨울에만 쉬고 3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 일년에 두번씩 농사를 짓는다. 겨울과 3-4월에는 땅에 전기를 넣어 얼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비닐을 세겹으로 쳐 열을 보호해야 한다. 매해 재배 작물의 선택이 수입에 큰 영향을 준다. 재배된 채소는 공소(공판소)가 없어 본인들이 직접 도시에 가져다 판다. 어떤 40대 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짓고 남편은 농민이지만 농사는 짓지않고 그냥 쉰다고 한다. 이곳 남자들은 대부분이 공인이 아니면 다른 일에 종사한다. 그리고 농사는 주로 여자와 노인이 맡는다. 그 이유의 하나는 수전이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말에서 밭 농사는 주로 여자가 맡는다는 관념이 아직도 조선족 사이에 상당히 강하게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 도시 공동체

도시 공동체는 크게 보아 두가지 형태로 나뉘인다. 하나는 비교적 오래된 거주지로 일반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비교적 최근에 건립되기 시작한 아파트촌이다. 주로 중심지에 있는 일반 주택가는 주거 조건이 매우 열악하다. 연길시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6·25 직후 우리나라의 판자촌을 연상케 하는 이들 주거지는 좁은 골목 양쪽으로 단층짜리 회벽 내지 시멘트벽으로 된 집들이 사이도 없이 길게 들어서 있다. 각각의 집은 침실 한칸과 부엌이 달린 큰방 하나가 전부이다. 개별 화장실은 없고 모두가 큰 길가에 있는 공중변소를 사용한다. 이러

한 시설은 처음 정부에 의해 제공된 것이지만 지금은 거의가 개인 소유이며, 이러한 곳에는 개체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산다. 큰 길가에 있는 집들은 거의가 개체 상점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주거 지역이 결코 빈민 지역이나 범죄지역은 아니다. 그러나 주거 지역 안에 전혀 공동의 공간이나 광장이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밀집 그 자체는 주민들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에 기초한 공동체의 형성을 촉진시키기보다도, 상호 무관심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 실제 이러한 지역에서 사람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아파트촌은 주로 같은 직장 단위의 사람들로 구성된다. 집체 단위의 투자로 집을 지어 매우 싼 값에 세를 주거나 막대한 보조를 주어 사도록 한다. 집체 단위가 하나의 공동체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집체는 그 성원에게 집을 제공하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초기에는 하나의 집체가 하나의 지리적 구역을 차지하여, 모두가 그 안에서 일하고 거주하고 생활하였다. 이러한 공동체의 대표적인 것이 도시의 인민공사들이었다. 그러나 빠른 성장을 지향하는 개발체제하에서 이러한 거주와 생활공간 및 직장이 하나의 경계 안에 있는 공동체의 지속은 어렵지 않을 수 없다. 대신 단위들은 인근 또는 외각 지역에 아파트를 지어 이를 그 성원들에게 공급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렇게 공급되는 아파트들은 대개 3-5층 건물의 단지를 이룬다. 도문시의 석현진과 같은 공장지대에서는 보다 고층의 아파트 건물도 볼 수 있다. 주거면적은 30평방미터에서 100평방미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면적의 할당은 일차적으로 단위에서의 지위에 의해 결정된다. 적은 아파트는 개별 화장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와 같은 아파트촌의 주민들의 직장이나 지위의 동질성 때문에 상호작용이 매우 강하다. 가령 과거 간부들에게 분배된 연길 중심부의 광명가 아파트 같은 곳은 이직(離職) 내지 퇴직한 간부들이 살고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노인 독보조(讀報組)가 운영되고 있다. 노인 독보조는 상호 친목의 도모는 물론 공동 학습조직 및 사회 봉사조직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연변 대학 근처 연서가에는 연변대학 관계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뽕뽕하게 들어서 있다. 학교에 개인 연구실이나 전화를 갖고 있지 못한 교수들은 이웃에 살면서 자주 왕래하고 여러가지를 의논한다. 결국 연변 도시의 조선족 아파트촌은 아직 직장과 업격히 구분되는 거주단위의 공



동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김재국의 단편소설 '우리 이웃들'(천지 1990.4)에 잘 묘사되어 있다. 이 소설은 대학교수인 남자가 부인이 대외무역국의 공무원으로 취직되어 그곳에서 제공하는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 살면서 느끼는 좌절과 비애 그리고 이질감을 그리고 있다. 여기서 주인공의 가족은 두개의 다른 생활 세계 사이의 건널 수 없는 간격을 체험한다.

집체 단위가 주택을 포함한 개인의 복지를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비용이 엄청나고 도시의 택지가 점점 부족해짐에 따라 새로운 성원, 특히 젊은이들에게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단위는 정부 권력기관이나 무역국과 같은 중요한 국가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젊은이들은 주택을 분배받지 못해 부부가 별거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다행히 남편과 아내 어느 쪽이든 부모의 집에 방이 여유가 있으면 이들은 부모와 함께 거주한다. 개인적으로 방 한칸 세를 들면 봉급의 절반 내지 3분의 1을 세로서 지불하여야 한다. 집체나 정부의 방세 보조로서는 실제 비용의 5분의 1도 감당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은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수 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방이 여유가 있으면 가족이 같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젊은 부부가 따로따로 살아야 한다. 연변에서는 개혁·개방 이후의 집의 개인 소유가 허용되면서 대부분의 단위가 그 성원들에게 아파트를 지어 팔고 있다. 아무리 단위의 보조가 크다고 해도 이것은 돈의 여유가 없는 젊은이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다. 여하간 자녀의 가족과 부모의 가족이 동거하는 현상은, 위에서 고찰한 주민들의 동질성에 기초한 긴밀한 상호작용과 함께, 연변도시의 조선족에게 있어서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의 형성에 상당히 공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 고승재, 1973, 「한국이민사연구」, 서울 : 장문각.
- 권태환, 1990, "일제시대의 도시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의 사회와 문화」 제11집.
- 김만석, 1989, "일제의 집중영(집단부락)", 「봉화」, 북경 : 민족출판사.
- 김성호, 1991, "연변조선족의 이주력사에 관한 약간의 조사연구", 「민족단결」 4호, 북경 : 국가민족사무위원회.
- 김영모, 1992, 「중국 조선족사회 연구」, 서울 :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김 철, 1965, 「한국의 인구나 경제」, 동경.
- 류병호, 1989, "30년대의 조선족 이주민", 「봉화」, 북경 : 민족출판사.
- 리원길, 1989, 「설야」, 연길 : 연변인민출판사.
- 박경휘, 1987, 「조선민속사연구」, 심양 : 료녕민족출판사.
- 박재일, 1957, 「제일 조선인에 관한 조사연구」, 동경.
- 연변당사학회, 1989, 「연변40년기사(1949~89)」, 연길 : 연변인민출판사.
- 연변조선족략사편찬조, 1986, 「조선족략사」, 연길 : 연변인민출판사.
- 엄지강 · 장영경 · 장린(편저), 1989, 「전업호법률고문」, 북경 : 민족출판사.
- 최창래 · 주성화(편), 1990, 「연변인구통계 : 자료편」, 연길 : 연변대학출판사.
- 최창래 · 진통하 · 주성화, 1989, "연변인구와 계획생육 간론", 수희림 외(편), 「발전중의 연변」, 연길 : 연변인민출판사.
- 한상복, 1989, "독립운동가 가문의 사회적 배경 : 우당 이회영 일가의 사례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집.
- 한상복 · 권태환, 1992, 「중국연변의 조선족 : 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Zong, Huaiwen, 1989, *Years of Trial, turmoil and Triumph : China from 1949 to 1988*, Beijing : Foreign Language Press.